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800

2018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푸드아트 테라피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수업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서 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푸드아트 테라피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수업 방안 연구

Class Measures Study of utilizing Food Art Therapy Art Treatment Technique

201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서 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푸드아트 테라피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수업 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익 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서 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서희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인 경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익 모 (인)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2

Ⅱ. 본론
1. 청소년과 미술교육
1) 청소년기의 특성 ····· 3
2) 미술교육의 목적과 장점 ····· 9
2. 미술치료와 미술교육
1) 미술치료의 개념과 목적 ····· 14
2) 미술치료의 가치 ····· 16
3)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연관성 ····· 18
3.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 수업 방안
1) 푸드아트와 푸드아트 테라피의 정의와 효과 ····· 22
2) 푸드아트 테라피 응용방안 연구 ····· 32
3) 푸드아트 테라피가 적용된 미술수업 방안 ····· 42
4) 푸드아트 테라피가 적용된 수업의 기대효과 ····· 72

Ⅲ. 결론 ····· 77
참고문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 1>. 미술치료 진단 프로그램 ····· 37
<표 2>. 교학사 교육과정 ····· 39
<표 3>. 미진사 교육과정 ····· 40
<표 4>. 천재교육 교육과정 ····· 41
<표 5>. 수업지도안 1-1 ····· 47
<표 6>. 수업지도안 1-2 ····· 49
<표 7>. 수업지도안 2-1 ····· 53
<표 8>. 수업지도안 2-2 ····· 56
<표 9>. 수업지도안 3-1 ····· 60
<표 10>. 수업지도안 3-2 ····· 62
<표 11>. 수업지도안 4-1 ····· 67
<표 12>. 수업지도안 4-2 ····· 7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목차

<그림 1-4>. 23
<그림 5-9>. 24
<그림 10-13>. 25
<그림 14-15>. 26
<그림 16-18>. 27
<그림 19>. 44
<그림 20-21>. 45
<그림 22-25>. 4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중등학교 학생들은 성장함에 따라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자신의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며 고민하고 방황하며 성장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과도기적 특성으로 정서적, 신체적으로도 불안정해지며 또한 각종 입시, 교우관계, 학업성적,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 많은 주변의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점차 어른들의 보호에서 벗어나 어른보다는 또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등 가치관 면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것 외에도 자신에 대한 걱정, 갈등 등 복잡한 내면을 가지게 된다. 이때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적응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폭력, 우울증, 가출, 따돌림,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 교류하며 공감할 배출구가 필요하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장소이기에 각 과목의 교육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면을 함양시키고 인성교육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과목 중 미술교육은 청소년기에 청소년 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고민 등을 보다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미술교육은 자아표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개성을 길러준다. 또한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시각 정보를 통한 미적 안목을 길러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표현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또 '미술은 심미적 놀이'라는 말과 같이 학생들은 미술을 통해 심미적 안목을 길러준다. 미술교육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의 표현을 감상함으로 인해 이해하고 교류함으로 인해, 삶을 보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며 결핍을 해소하게 한다. 이렇듯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성, 상상력,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미술교육의 장점에 입각해 청소년들의 내적 표현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같은 미술을 매개체로 하는 미술치료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미술치료는 내면 속의 상처나 트라우마, 왜곡된 문제 등을 발견하고 회복시킨다. 그 과정 속에서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자기 성장을 도모 하게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일반적인 상담은 언어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지만 미술치료는 미술 활동으로 표현되는 무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언어를 통한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숨기는 것이 가능한 반면, 미술치료는 그림에 표현된 무의식이 상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미술활동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하며 진단하고 증상을 완화 및 감소시킨다. 미술 활동을 매개체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미술 활동을 즐김으로써 긴장이 완화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존감을 높여주고 통제력을 키워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환경적, 정서적 변화로 불안정한 내면을 미술을 통해 발산하고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미술치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미술치료에 사용되는 검사 기법 및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의 연구와 현행 교과서들의 단원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 방안을 제안하였다. 푸드아트 테라피를 적용시킨 수업을 통해 학생의 성격 인지와 자아성찰, 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사 관계, 학업 스트레스, 학생이 가진 가치관, 학교 문제의 유무 등 많은 면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청소년기의 변화에 혼란스러움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이끄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기대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Program Using Food Art Therapy

Lee Suh-Hee
Advisor : Prof. Ic-mo Kim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ccording as secondary school students grow, they have been approached in adolescence and have formed their own identity and sense of values and are agonizing, wandering and growing. In these times, Students with an age of transition are unstable emotionally and physically and have suffer from stress in a lot of environments such as student relationship, school record, relation with parents and teachers, and various entrance examination. Also, they have departed from protection of older persons gradually and putted priority to their friends. In addition to it, they have complicated inside such as worry about oneself and discord etc. Many problems can be occurred in adaptation this time, because they have uncontrollable stress, school violence, melancholia, abscondence, and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t.

In this time, adolescence are needed to express their inside, to have fellowship, and to have an sympathizing outlet. Because juvenile spend half of a day in school, school have to guide teenagers with cognitive and emotional education. Art education among subjects contacted at school can help teenagers to relief their various suffering such as stresses, anxiety, and agony. Art education can help to express identity and to for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ersonality. Also, Art education can foster aesthetic inside through several visual information contacted on everyday, and develop initiative of students by free and open presentation. Students with 'Art sensuous play' can get sensuous appreciative eye through art. Because art education can expresses own emotion, appreciate friend's expression, and communicates with others, it can give them more plentiful and imaginary life. Like these, art education can provide autonomy, imagination, creativity and critical thoughts.

This research catch art therapy as a important treatment that have art a mediator to deepen juvenile's inner expression with quality of adolescence and advantage of art education. Art therapy find and get back inside wound or Trauma or distorted problem so on. In this process, potential energy is revealed and their growth are developed. General consultation have to be expressed client's emotion through language, but art therapy is consisted through art activity through expressed unconscious. Also, while consultation through language does not express their own emotion or hide is possible, art therapy directly see client's unconscious expressed to paintings. Through this, consultant and client can communicate with art activity, diagnoses, and decrease symptoms. As it occur through art activity, client enjoying art activity feels intimacy and has been alleviated from tension. Also, there is effect of that enhance self-respect and develop controls.

Art therapy can make students to emits unstable inside by abrupt physical, environmental, sentimentalize change that is suffered in adolescence and to express it. I wish to prepare base of positive mind that can prevent problem that can happen to students with comprehension of teenagers and art therapy to protect and overcom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 research test technique and food-art therapy and suggest Art Teaching Program available in education field. I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uggest teaching program using a method that is suitable to a unit based on current textbooks. A class with Food Art Program understands student's characteristics, detects various problems such as self-examination, family relation, friend relation, teacher relation, studies stress, student's valu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school problem etc. and provide positive mind. At last, this study will help adolescence to solve their problems and to advance beyond the problem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 교육의 목적은 인성 함양과 창의성 육성, 사회성 배양을 지향하는 전인 교육에 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물질적 번영을 이루고 있음에도 학교 교육에 '균형 잡힌 인격형성'에 대한 교육에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청소년 문제의 사회 부적응 등과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대책 없이 점차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인성교육의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우울증, 가출, 자살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술은 작품을 만들고 그리는 과정에서 내면의 상처나 억눌러 왔던 부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며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문제를 조율하며 마음을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며 학생의 정서가 순화되는 치료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미술치료 관련 선행 논문을 분석하면 조은희(2006,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외 2인은 미술치료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안성수(2010,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외 4인은 미술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한연수(2012,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외 3인은 미술치료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은 효과적인 미술치료 교육 방법론으로써 푸드아트 테라피 조형 학습법을 연구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방황에 자신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푸드아트 테라피 미술치료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 중심을 배경으로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의 어원적 개념에 이어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가지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청소년기의 특성에 입각해서 그 시기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안정적이고 바른길로 이끄는데 있어서 왜 미술이 필요하며, 미술이 청소년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미술교육이 무엇인지, 미술교육이 가진 목표를 통해 미술교육이 청소년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에 최적화 되어있음을 인지한다. 현행 미술교육의 1주일에 1시간이라는 적은 시간에 대비해 높은 효율을 위해 미술치료에 대해 연구한다. 미술치료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가치와 장점 및 미술수업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논술한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미술치료와 미술교육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정리한다. 다음으로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한 정의와 효과, 목표와 치료방식을 이해하며 미술치료기법 중 수업에 적용하기 적절한 기법들을 위주로 정리한다. 또한 푸드아트 테라피와 미술치료기법을 교과과정 내에 활용을 하기 위해 미술 교과서들의 단원을 분석하고 치료기법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단원을 연구한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미술수업에 푸드아트 테라피를 활용한 수업 방안을 창출하고 제안한다.

연구방법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 미술치료와 푸드아트 테라피 관련 참고 문헌과 선행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고 고찰하여 정리하고 이 연구를 토대로하여 푸드아트 테라피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제안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본론

1. 청소년과 미술교육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Adolescence)라는 단어는 ‘성장하다’, ‘성숙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abolescere'에서 유래되었다.” “청소년 시기란 심신 양면에 걸쳐 급격히 발달하고 변화하여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즉, 청소년기는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에서 자립적이며 성숙한 상태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성장기 특유의 과도기적 발달 관계를 가지고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며 2차 성징이 나타난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점점 성인에 가깝게 성숙한다.

보통 청소년기라 보는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이다. 이 시기를 말하는데 자주 쓰이는 단어는 과도기, 주변인, 질풍노도기, 지불유예기이다.[1)]

즉, 과도기란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볼 때 미성숙한 아이, 즉 어린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바뀌어 가는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어린이’와 ‘어른’ 양측에 모두 속하게 되어 완전한 성장을 이루기 전까지 과도기적 성격을 띠게 된다. 주변인이란 과거에 속해왔던 아동적인 집단의 성격과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는 성인적인 집단의 성격 사이에서 양 측 모두 영향을 받지만 두 집단 모두 확실하고 완전하게 소속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청소년의 과도기적 상태를 잘 나타내는 단어로 어린아이의 경계와 어른의 경계에 한 발씩 걸친 채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질풍노도기는 hall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을 논의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급격한 신체, 정신적 변화와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격동으로 가득 찬 시기란 의미이다. 지불유예기는 신체적, 생리적 성숙은 이루어졌지만 심리적, 사회적 미숙함에 의한 성장

1) 조은희, “중등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6 18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발달의 불균형으로 성인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의 획득이 지연된 형상을 말한다.

또한 셀스키(H. Schelsky)[2]는 청소년기를 '회의 세대'로 규정하고,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단계 중에서 더 이상의 아동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성인의 행동이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며 14-15세를 청소년으로 구분했다. 정범모 교수[3]는 사춘기와 청년기를 통칭하여 '청년'이라고 하고, 보통 12-14세 경에 시작해 연령에 상관없이 결혼과 직업의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로 보았다. 권이종 교수[4]는 청소년기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의 과도기로서 대략 12-13세부터 22-23세까지로 보았다. 즉, 이러한 학자들과 교수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청소년기란 12-15세의 사춘기를 시작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22세 이상의 성인까지를 말하며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심신 양면의 급격한 발달이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특성은 학생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그 특성을 분류하자면 대표적으로 신체적 특성,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 나뉜다.

신체적 특성은 청소년기의 외관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성이다. 청소년들은 키, 체중부터 골격과 근육량, 신경, 이목구비, 신체 내부의 각종 장기 등 전체적으로 나타나며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여성은 유방이 발달하고 초경을 맞게 된다.

남성은 수염이 나기 시작하며 어깨 골격의 확장, 변성기 등의 변화가 생긴다.

남녀 청소년 모두 급속도로 신장이 발달하며 성적 기관의 발달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능력이 생긴다.

---

2) Helmut Schelsky(헬무트 셀스키) 1912-1984. 독일 사회학자, 기관 이론, 사회적 계층화 , 가족의 사회학, 성의 사회학, 청소년 사회학, 산업 사회학, 교육 사회학 및 대학 시스템의 사회학에 관한 책을 출간. 한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적 표현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2012, 6p, 재인용

3) 정범모 192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석좌교수.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주요저서로 <교육의 향방>, <한국의 교육세력>이 있다. 한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적 표현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2012, 6p, 재인용

4) 권이종 194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주요저서로 <청소년 교육개론>,<청소년 문화론> 등이 있다. 한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적 표현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2012, 6p, 재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변해가는 신체에 적응하는 동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또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그로 인해 변화에 대한 만족감과 궁금함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어 자신이 남에게 보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 다른 친구의 성장 정도와 자신의 성장 정도를 비교하며 걱정을 하게 된다. 자신의 성장 정도가 뒤처지거나 이목구비의 변화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신체적 특성은 청소년의 정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화를 맞았을 때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생각은 청소년의 자아에 큰 변화를 준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움츠러들게 된다.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높은 자아 존중감과 건강한 자아를 가진다. 대인관계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활발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양성할 수 있다. 자아와 가치관의 형성 외에도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나타나는 성적 욕구와 죄의식, 수치심과 불안함 등을 겪고 충동조절의 문제 등에 직면한다.

인지적 특성은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는 새로운 지식들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고방식의 변화이다. 청소년기에는 현실적인 것은 물론 어떠한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 구체적인 형상이나 경험을 하지 않아도 상상해 구상할 수 있게 되며 이론이나 이치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주제에 대해 임의로 이론을 설정하고 조직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조합적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구분하고 정리해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기 때보다 사고능력이 한층 성장해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 초기에는 이제 막 발달되기 시작한 사고이기에 타인에 대한 완전한 포용과 이해, 배려, 이성에 근거한 욕망의 억제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조은희(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소년은 자신이 가진 생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범, 암묵적인 룰 등에 위배되어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타인의 생각을 알기만 할 뿐 자신의 사고와 구분 지을 수도, 존중할 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나 행동이 나타난다.[5] 또 다른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면이 있다. 그렇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또래 친구들을 전적으로 믿고 주변 관계에서 친구를 우선시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이상이나 생각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의 벽에 자신의 생각이 가로막힐 경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상향과 현실의 갈등으로 인해 반항하게 되고 심한 경우 가출, 비행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서적 특성은 청소년기의 특성 중 가장 변화가 많은 부분이다. 급격한 성장과 2차 성징, 성장의 개인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 문제, 인지적 발전으로 인한 부모, 친구. 교사와의 불화 등처럼 사회, 인지, 정서, 신체 다방면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겪게 된다. 사소한 일에도 슬픔이나 기쁨, 즐거움을 느끼거나 침체되어 의욕을 잃거나 분노하는 일이 잦는 등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 해진다. 또 타인을 의식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된다. 때문에 수줍음을 타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남에게 보일 자신의 모습을 신경 써 외관을 꾸미기 시작하는 등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통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특히 이성에 대한 수줍음이 많고 간혹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과장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특성은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 독립적으로 변하는데 발생하는 사회관계적인 면이다. 청소년은 아동기의 부모 의존적 측면에서 벗어나 자립심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을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 구분 짓고 독립하려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은 서서히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어른, 성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중요시하던 것에서 점차 부모보다 또래 친구들의 지지를 더 중요시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뜻이 맞는 친구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또래 친구에게 집중하며 마음속의 고민이나 생각을 교환하는 등 깊은 사이가 된다. 이소희(2012)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친구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아감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5) 조은희, 숙명여자대학교, 2006, 위 논문. 20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적, 사회적 힘을 얻는다. 이런 친우 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때 또래들로부터 친밀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고립감과 사회 부적응, 더 나아가 부정적인 자아를 얻게 된다.[6)]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변화에 잘 적응하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는 학생은 학업 성적, 교우관계뿐 아니라 사회인의 일원으로써 바람직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갈등과 문제를 완만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높은 발생률을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으며 즐거워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가면 우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지속되는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변의 의지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해 극심한 무기력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주로 우울의 원인은 각종 스트레스나 따돌림, 부모님의 이혼이나 부고, 이룩하려던 꿈의 상실 등이 있다. 우울증을 겪는 학생이 보이는 증상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낮은 학업 성적, 가족과 친구와의 지속적인 불화 등이다.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공부는 물론 운동, 취미 등 다방면에서 흥미를 잃어버린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가 힘들며 점차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면모를 보이고 장래에 대한 목표의 불확실함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무단결석이나 등교 거부, 비행이나 가출을 하고, 우울증을 견디기 위해 술이나 담배를 접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엔 자살을 하기도 한다.

둘째, 불안함이다. 불안은 다른 사람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의 준비나 사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겪을 수 있는 불안은 주로 시험과 입시, 성적과 진학 등 학업에 관련된 불안 증상이 많다. 시험 전에 느끼는 초조함이나 결과에 대한 걱정 등 간단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

6) 이소희, 성신여자대학교, 2012, 위 논문 11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박증, 일시적인 장애, 우울증, 공황 등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 불안이 심해지면 심리치료 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학업과 생활, 청소년의 자아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쳐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섭식장애이다. 신경정신과적 장애로 먹은 음식을 고의적으로 토하거나 과도한 폭식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한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어트 등에 지나치게 몰두해 일부러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집착으로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증상이 심해질 경우 거식증, 폭식증, 대식증이 올 수 있으며 고도 비만이나 영양 결핍으로 청소년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넷째, 성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변화, 청소년기 특유의 과도기적 상태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학업, 기숙사제 학교나 홀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등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외감과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그 소외감을 채우기 위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보다 깊은 교제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신체의 발달로 성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있지만 사회적, 정신적으로는 아직 불완전하다. 실질적으로 깊은 교류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와 각오가 되지 않은 때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잘못된 피임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임신, 출산 및 낙태, 성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약물남용 및 의존의 문제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 중에는 음주와 흡연율도 주목받고 있다. 흡연뿐 아니라 본드 같은 마약성 화학약물을 흡입하거나 환각을 위한 거담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안성수(2010)에 따르면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흡입제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억압 작용으로 자기 억제력의 상실, 도취감과 어지러움, 기억상실, 집중력 결여, 혼돈, 간질발작과 같은 증세를 유발한다. 신체적으로는 간, 심장, 신장 및 골수에 대한 치명적 손상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7)]

---

7) 안성수, 공주대학교, 2010, 위 논문 24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여섯째, 자살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과 다방면의 스트레스,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나 부부 싸움, 부모의 무관심, 학교폭력과 대인관계의 불화, 학업 성적과 진학 혹은 입시 등 겪는 문제점들의 심화로 인해 일어난다. 혹은 자신의 좌절감이나 절망감, 타인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달라는 구조요청의 이유에서 시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자학심, 주변 환경에 대한 분노나 절망으로 인해 앙갚음 등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자살 시도는 오로지 순수한 죽음을 바라서 하는 행동이 아닌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얻는 부담감과 혼란이 적을수록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가출, 비행, 일탈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완전한 자아를 계속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혼란을 덜어내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미술 활동은 자유로운 발상과 사고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미술 과목이므로 모든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배출구인 것이다.

2) 미술교육의 목적과 장점

미술교육은 생각하고, 느끼며 상상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인지하게 도와주는 감성 및 사상의 전달 수단이다. 미술교육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정보 혹은 자신의 생각을 손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며, 심미성의 발달과 함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등 전인적 발달에 이바지한다.

신체 발달 면에서의 미술교육은 전체적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전체적 지각 능력이란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뿐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함으로 인해 생기는 시각 이미지를 포함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감성의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오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자신의 내면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존재하는 자신만의 방식과 규칙대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정서 발달 면에서 미술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학생은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즐거움, 행복감 등을 표현하기도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미술 작품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해소하기도 한다. 이 표출과 해소의 과정에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불안함과 긴장감을 해소시켜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면과 심리, 욕구를 표현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발달 면에서 미술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협동 활동으로 다른 학생에 대한 공감과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협동 활동으로 같은 재료를 쓰고 한 공간에 함께 표현함으로써 의견을 조율하게 되고 양보를 배우게 된다. 다른 학생의 내면을 알게 되며 궁극적으로 다른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의 폭이 자신에서 타인으로 확장되어 다른 학생들의 생각과 권리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 발달 면은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여 생각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상 및 계획하고 자신과 친구의 완성된 작품을 평가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신의 계획과 구상한 것에 어울릴 것 같은 재료와 표현 방법을 고민하는 자극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도전을 하게 된다. 이렇듯 미술교육은 정서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 존중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며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8)]

미술교육은 글자 그대로 미술과 교육이 더해진 것이다. 미술이란 사람의 내면과 본질, 느낌과 정신 상태를 회화나 조각, 디자인, 공예, 서예 등의 미적 표현 활동을 말한다.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한 함양시켜 교육을 받은 후 이전보다 더 성장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미술교육은 사람의 내면을 조형적, 시각적, 공간적으로 표현하며 그 작품을 서로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며 미술이라는 창작 활동을 통해 학생의 미래의 가능성을

8) 고현 외 4,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경기: 정민사, 2016 15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9] 미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습득하며 자기만의 독특함, 창의력, 심미성이 발달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 밖에도 청소년들은 미술교육으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자아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로 인해 개성과 창의성을 길러준다. 더불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나아가 의사소통의 방법이 된다. 학생이 미술활동으로 표현할 때 일차원적인 보고 듣고 느낀 것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정신세계, 상상력,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오감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을 생각과 상상을 통해 그리기 위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림에 학생의 내면이 표출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보며 더불어 친구의 그림에서 보이는 친구의 생각을 통해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일상에서 시각을 통한 정보의 입수, 즉 시지각에 의한 미적 안목을 향상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정보화시대에서 정보를 입수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각이다. 물론 이때 아무런 고민과 생각 없이 정보를 본다고 해서 미적 안목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눈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 생각할 때 정보는 각자 자신이 지녀온 사고의 틀에 의해 해석된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미지는 수없이 달라진다. 이렇듯 미술은 감상함에 있어 미적 안목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길러진 미적 안목을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정보들을 보다 미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로 인해 더욱 윤택한 환경과 문화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게 된다.

이 시지각은 미술교육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육성된다.

셋째, 미술은 우뇌 중심의 교육이다. 대부분의 교과들은 언어, 개념, 수리적 면을 중요시하는 좌뇌 중심 교육이다. 좌뇌와 우뇌는 각자 특징도, 맡은 일도 다르다. 좌뇌는 분석적이며 합리적이고 논리적, 순차적이다. 반면 우뇌는 종합적이며 공간적이다. 직관적이며 총체적이고 유사적, 비합리적이다.

넷째, 미술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표현을 통해 개성과 다양함을 추구한다. 동일한 주제가 여러 명에게 주어져도 그 주제를 표현하는데 학생 개개인의 생각, 사고,

9) 이지혜, "미술치료를 활용한 중등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3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상, 느낌, 감정, 내면 등이 자유롭게 녹아들게 되어 개성 있고 다양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것과 다양한 것, 보다 개성 있는 것을 추구하는 미술의 성격으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성의 발달을 꾀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미술은 이러한 개성과 다양성을 서로의 작품 안에서 조화시킴으로써 미적 질서 의식을 함양시킨다.

다섯째, 미술은 '심미적 놀이'이다. 미술은 작품의 아름다움과 과정의 즐거움이 기본적 근간이 된다. 쉴러(Schiller)[10]는 미적 유희론에서 '미술은 심미적 놀이이며 미술을 통해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11] 쉴러는 사람의 유희의 욕구를 고차원적인 해소 방법으로 미술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미술을 통해 심미적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또한 친구의 표현을 감상함으로 인해 이해하고 교류함으로 인해 삶을 보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며 결핍을 해소하게 된다.[12]

미술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들의 자율성, 상상력,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전인적 교육에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과목으로 미술교육의 목적 역시 전인교육에 관련되어있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미적 안목과 조형능력, 창의성의 발달로 나뉜다.

첫째, 미술교육을 통해 미적 안목을 육성시킨다. 미적 안목이란 식별력, 분별력, 가치 판단을 포함한 오감을 통해 얻은 정보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보는 눈이나 상상과 관념 등의 비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는 것도 포함된다. 더불어 정보와 사물을 분별하며 감상할 때 미적 감수성도 함께 발달하게 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적 가치, 정보와 환경 그리고 생명 등의 다양한 사회 현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

둘째, 미술교육은 각종 창작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화와 조소, 디자인, 공예

---

10)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 독일, 시인,극작가.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하여』(1795)에서 '현실성과 형식, 우연성과 필연성을 통일하는 유희에서야말로 세계의 통일과 인간의 통일이 회복되며,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 미 속에서 유희하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다'는 유희론을 기술.

11) 조은희, 숙명여자대학교, 2006, 위 논문 5p

12) 김인실, "중등 미술 교육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6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의 만드는 활동을 통해 조형능력이 발달된다. 조형능력이란 형태를 만드는 능력으로 조형 감각과 미의식을 재료와 매체, 용구를 사용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조형능력은 미술작품만 아니라 학생의 주변 환경까지도 자발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한 조형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표현 방법과 조형의 요소, 원리를 고려하여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며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표현하고 결과물인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함양시킨다.

셋째, 미술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표현 활동과 표현을 위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창의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사고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융통성과 유연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에 창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학생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해야 하며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개방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미술교육은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을 통해 대상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해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과 표현력,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표현활동, 감상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나타내며 나아가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전인적인 사람으로 육성하는데 효과적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미술치료와 미술교육

1) 미술치료의 개념과 목적

미술치료는 1942년 결핵 요양소에서 동료 내담자들과 함께 치료 작업을 시작했던 영국의 미술가 아드리안 힐(Adrian Hill)[13]에 의해 유래되었으며 미국 1961년 미술치료 회보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편집자인 울만의 논문에서 처음 표현되었다.

미술치료(Art Therapy)는 글자 그대로 미술(Art)과 치료(Therapy)의 두 영역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미술이라는 표현활동을 통해서 심적 적응과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돕는 치료 활동이다. 미술은 자아의 이해와 자신의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며 이것이 미술의 치유적인 힘이 된다. 즉, 미술은 표현하는 사람의 심리에 도움이 되며 내면의 상처나 트라우마(trauma)와 왜곡된 문제 등을 발견하고, 회복시키며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자기성장을 도모하게 한다. 이처럼 회화나 조소, 디자인, 공예 등의 미술표현을 통해서 내면에서 형성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수용하며 결과적으로 자아의 통찰에 의해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잠재적 문제행동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내면의 상태를 진단하고, 심리적 갈등을 내담자 스스로가 마주하며 해소되도록 도와준다. 미술치료를 받는 내담자는 미술창작 표현활동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 맞는 치료 목적을 기준으로 개입하고 소통하며 미술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내담자와 함께 심리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심리적인 불균형을 완화하며 내담자의 적응과 성숙, 심리적 발달을 함양시켜준다. 또한 미술작품을 완성하게 되면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이나 개인의 성장을 함양하고 열등감의 근원을 제거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13) 아드리안 힐(Adrian Hill) 1895-1977. 영국, 예술가. 1942년 영국의 에드워드 7세 병원에서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작업을 하면서 치유적 기능을 발견한 아드리안 힐(Adrian Hill)이 처음으로 "Art Therapy"라는 용어를 사용. 『Art Versus Illness』(1945)에서 공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술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내담자들 중엔 미술에 소질이 없음에 대하여 염려하기도 한다. 미술에 있어서 표현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수를 위한 미술수업 기준과 미술치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미술은 작가의 내면을 작품에 담고, 작품의 과정이나 아름다움, 창의적임 등이 기준이 되나 치료에서의 미술의 기준은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내면 그 자체이다. 즉, 작가의 심리상태와 상징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창조적인 표현활동은 그 자체로 정화와 승화하는 면이 있다.

표현 중에 묘사를 할 때, 그 묘사를 위해 표현 대상을 조직화하며 정신 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미술치료는 언어를 통한 상담보다 원활하고 내담자의 거부감이 적다. 기본적으로 미술은 친숙한 의미로 다가와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상담은 언어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무의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술치료는 언어적 상담치료보다 내담자의 방어가 적어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된다. 언어적 상담의 경우는 말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을 상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이나 자신의 감정을 인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언어를 통한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숨기는 것이 가능한 반면 미술치료는 그림에 표현된 무의식의 상태가 상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미술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하며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미술치료는 최근 들어 '예술치료', '창의적 매체에 의한 치료', '표현 치료' 등으로 불린다.[14)]

미술치료가 처음 대두될 당시, 미술치료를 새로운 영역으로 정립시킨 학자들은 마가릿 나움버그(Margaret Naumburg), 이디트 크래이머(Edith Kramer), 울만(Ulman)이다. 마가릿 나움버그는 미술을 본격적인 치료 도구로 이끌어내 미술치료라고 직접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만든 학자다. 그는 치료 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치료 효과를 위한 미술 작업'을 중시했다. 내담자의 그림 안에 내담자의 무의식이

14) 고현 외 4,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경기: 정민서, 2016 40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현되기 때문에 그림을 내담자의 내면 상태를 표현한 상징적인 언어로 보았다. 내담자와 상담사의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스스로의 작품 표현과 해석, 그림 자체의 상징성을 중시했다. 반대로 이디트 크레이머는 미술의 입장과 미술 교육적 관점에서의 미술을 중시하였다. 또한 크레이머는 미술에 내재된 치료적 속성이 내담자의 표현과 승화를 통해 발현되어 자아성장을 도우며, 이에 따라 미술은 곧 '승화'라고 보았다. 미술을 통해 내담자는 갈등과 감정, 충동 외에도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감소시킨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해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며, 이렇게 표출하여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와 마주보고 자아의 통합을 이루는 등 미술은 그 자체로도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울만은 나움버그의 치료 중심 관점과 크래이머의 미술 중심 관점, 프로이드(Freud)[15]의 정신분석적 틀을 기준으로 내적 갈등과 승화를 미술치료에 도입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지만 결국 미술치료는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상황을 미술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미술창작활동을 통해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치료라고 할 수 있다.[16]

2) 미술치료의 가치

미술치료가 가진 그 가치와 효과는 미술치료가 지닌 장점에 있다. 미술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해 보다 내담자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복합적,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상담의 치유와 발산에 미술이 특화되어있으며 이 점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입증되어 왔다. 미술의 감정의 발산과 승화 등을 통해 미술이 상담에 있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미술이 지닌 장점은 다음과 같다.

---

15) Freud(프로이드)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신경과 의사.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 정신분석의 방법을 발견해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한 심층 심리학을 수립.
16) 이상설, "중등학교 교육에서 미술치료의 역할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2012, 5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심상은 곧 생각이다. 미술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만든다.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 그 주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 주제에 대한 생각, 즉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이미지는 각 개인이 살아온 삶, 느낌, 경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미적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이러한 심상을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에 있는 심상 그대로를 상담자에게 보이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미술은 내담자의 방어기제가 약해서 상담자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언어적 상담은 심상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 생각하며 단어를 고르고 문장과 문맥을 통해 재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성적으로 내담자 스스로 단어의 표현을 조금 더 유의적으로 바꾸거나 숨기는 등의 자기 통제를 통해 방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적 표현은 내담자의 감정, 상황, 내면 상태가 미술작품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무의식에 의해 표현을 보이기 때문에 언어적 상담에 비해 훨씬 통제와 방어기제가 약하다. 이 무의식의 드러남은 미술치료가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다. 내담자가 예상치 않았던 자신의 무의식을 알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치료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내담자가 미술을 즐기게 되면 긴장이 누그러지고 치료 과정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된다. 심리상담에 있어 미술치료는 방어적이거나 위축되거나 상담을 철회하였을 때 자주 사용된다.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며 상담이 매 순간 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때 미술의 놀이적인 특징과 직접 미술 활동을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친밀감에 의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

미술의 유희적인 활동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다리가 된다.

넷째, 미술은 실제 행동이고 시간이 흘러도 보존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 회상이 가능하다. 미술치료가 지속될수록 내담자의 작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작품 안에 그대로 남아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변화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차후에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변화를 직접 보면서 회상과 성찰을 통해 변화와 새로운 성장을 맞도록 자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통제력을 키워준다. 내담자는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회상, 성찰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차츰차츰 자신의 장점과 단점, 자아를 알며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수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단점을 통제하는 것과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존감의 향상에 기여한다.

여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가지고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미술작품은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것들에 의해 함축적으로 구성된다. 언어적 상담은 하나를 말할 때 한 가지 내용을 말하지만 미술은 하나의 작품에서 많은 상황과 내면을 표현한다. 가령 집과 나무와 사람이라는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종이에 집과 나무, 사람을 그릴 때 이 세 가지를 통해 내담자의 마음 상태와 가정환경, 자아상태, 방어 상태, 고민의 유무, 스트레스, 내면의 억울함 등의 많은 것을 한 장 안에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술은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고, 감상하고, 그리고, 토론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소실된 기운을 되찾기도 하고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미술은 단순히 팔을 움직여 무언가를 그리거나 만드는 신체적 에너지의 발산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처럼 미술은 작품을 만든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술치료의 과정과 잠재성은 미술활동을 통해 사람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슬픔이나 상처를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치료는 개인적 심리상담치료뿐 아니라 잠재해있는 문제들의 발생을 예방하고 개인 스스로의 자아를 관리하며 긍정적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집단적 미술치료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3)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연관성

미술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푸드아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테라피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시켰다.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푸드아트 테라피는 미술치료의 효과 뿐 만 아니라 미술교육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의 감성의 승화와 친구 간의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의 일부가 된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공통점은 둘 다 시각 매체인 미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모두 미술활동을 통해 내면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감정이 승화되거나 해소로 인성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미술교육은 그 밖에도 타 교과목에 비해 긴장이 적고 친근하며 표현에 있어 자유로우며 청소년의 내적 갈등과 내면을 표현하게 하며 가시화한다. 이때 청소년들은 내면을 그대로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점차 자신들의 내적 갈등을 승화시키게 된다. 이 승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갈등이 완화되고 더불어 표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보며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등의 치료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반면 미술치료 안에도 교육적인 부분이 있다. 미술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물론 미술치료에서 교육은 치료라는 근본적 목표를 위한 보조적인 부분이다. 그렇기에 상담사가 미술 표현 기술을 가르치는 목적은 기술적 성장이 아니다. 기법을 통해 감정을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해 보다 고차원적인 승화와 자존감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같이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각의 범위에서 서로 연관된다. 상호 간의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대상과 진행 방식이 다르다. 미술교육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며 교육과정에 의해 계획대로 단계적이게 진행된다. 그러나 미술치료는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집단 미술치료라는 이름 아래 여러 명이 함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담자의 내면 상태나 환경에 맞추어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개별적인 진행을 한다.

둘째,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 미술교육은 인지와 정서, 협동력 등의 전체적 영역의 성장과 인격적 발달을 꽤 하며 미적 요소와 표현 기술 역시 중요시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을 통해 이루어져 기술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미술작품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의 해결이나 완화 등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담자의 손상된 상처 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트라우마 등을 치료하고 심적 성장을 목표로 하며, 치료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비중을 둔다. 그렇기에 미술교육에서의 미술작품은 심미성과 창의성을 위주로 표현하지만 미술치료에서의 작품은 내담자의 내면을 표출하는 배출구의 의미로써 표현된다.

셋째, 평가의 유무이다. 미술교육은 학생의 작품에 담긴 구상 및 계획과 표현 기법 등을 평가로써 점수로 측정하게 된다. 성적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는 평가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반면 미술치료는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내담자의 상황, 상담의 현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개연성이 있다. 내담자의 미술 표현기법의 습득이나 발전을 위한 가르침을 하기보다 내담자의 내적 심리, 정서, 갈등 등을 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그렇기에 미술치료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과도한 칭찬과 질책을 피해야 하며 작품에 대해 평가해선 안 된다.[17]

이처럼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연관된 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 역시 가지고 있다. 내담자의 성격과 특징, 흥미에 따라 달라지는 미술치료와 같게 요즘 미술교육도 학생들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교육을 시도하려는 점에서 유사하다. 미술교육은 전체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전체 학생이 대상이지만 미술치료는 발달보다는 개선이 목적으로 내담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가장 큰 차이는 미술치료는 교육적 발전이 아니라 치료적 개선이 목표라는 것이다. 두 차이가 명백하지만 교육과 치료가 합해졌을 때 미술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일반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 미술치료가 접목된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인성 교육적 측면에 목적을 둔다.[18] 미술치료가 접목된 미술수업의 가능성을 알며 여러 매체를 활용해 미술을 통하여 학생과의 의사소통과 학생의 잠재성을 감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술교육에 미술치료를 접목했을 때 미술치료는 치료와 회복이 아닌 불완전한 청소년기의 정서와 인성 발달의 측면에서 보다 원활하게 만든다. 미술교육 안의 미술치료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는 청소년기의 갈등과 걱정, 근심 및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17) 도은지,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수업 연구” 중앙대학교, 2007, 14p
18) 이지혜, “미술치료를 활용한 중등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13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민과 스트레스를 교사가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진 자신만의 세계와 시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또한 청소년의 측면에서 미술작품을 통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완화시켜준다.

둘째, 미술치료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아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받게 된다. 중,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과도기를 통해 보다 성숙해지며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된다. 이때 자신을 미술로써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통찰함으로 인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끔 돕는 인성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미술치료는 학교 내에서 겪는 문제,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 폭력을 감지 및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가해자는 가해자만의 불안정한 심리와 행동을 보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우울, 자신감의 하락 등 여러 심리적 문제를 보인다. 이때 미술치료는 문제를 알아채는 것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로 간의 이해와 의사소통, 부정적 감정의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

넷째, 미술치료의 여러 가지 효과로 미술교육이 더욱 주목될 수 있다. 현재 미술교육은 입시체제로 인해 타 과목에 비해 시간이 현저하게 적다. 이에 교사들은 1주일에 1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미술치료를 미술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적은 시간에 비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술교육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즐기며 감상교육을 통해 감수성을 길러준다. 여기에 미술치료가 더해졌을 때 미술교육은 인성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아의 설립과 표현, 소통과 이해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친구의 내면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술치료가 더해진 미술교육은 청소년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을 활용한 미술치료 수업 방안

1) 푸드아트와 푸드아트 테라피의 정의와 효과

① 푸드아트의 개념 및 정의

푸드아트란 음식(Food)으로 만드는 예술(Art)로서 채소, 열매, 곡류 등 여러 가지 식재료나 음식이 가진 다양한 모양과 색, 질감 등을 이용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여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푸드아트란 음식이나 식재료 등의 식품을 이용한 예술 활동이다. 대표적으로 음식의 맛과 멋을 살리는 실용미술인 푸드 스타일링(Food Styling)과 음식 재료를 통해 만드는 오브제 아트, 음식을 테마로 한 회화와 설치미술과 기발하고 창의적인 예술 장르로써 대두되었던 이트 아트(Eat-Art)등이 있다. 또한 음식을 매개체로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푸드아트 테라피(Food-Art Therapy)가 미술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푸드 스타일링은 요리라는 일차원적 가치를 넘어 한 폭의 예술로써, 음식을 소품을 사용해 장식하거나 다른 식품들을 사용해 연출하는 등의 스타일링을 통해 더욱 맛있어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트 아트란 일상 속의 식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으로, 즉 인간의 먹는 행위 자체를 예술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이 이트 아트는 다니엘 스포에리(Daniel Spoerri)이 음식을 활용해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음식 자체부터 일상의 음식문화와 음식을 먹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예술로써 표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처럼 푸드 아트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일링과 작가의 생각이나 내면을 표현한 예술 작품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재료들의 질감, 색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의 한 영역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② 푸드아트 작품 이해

본 연구는 푸드 아트의 이해의 예시로 주세페 아르침볼도(Giuseppe Arcimboldo), 주두오키(桔多淇), 파멜라 미셸 존슨 (Pamela M Johnson), 제신다 러셀 (Jacinda Russell), 제니퍼 루벨 (Jennifer Rubell), 비비 맥 (Vivi Mac), 테리 볼더(Terry Border) 등 7인의 외국 작가와 이동재, 노세환 등 2인의 국내 작가를 제시한다.

주세페 아르침볼도[19](Giuseppe Arcimboldo) 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 1 : 봄>

<그림 2 : 여름>

<그림 3 : 가을>

<그림 4 : 겨울>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작품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먼 거리에서 감상할 시 평범한 화관을 쓴 초상화로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머리와 얼굴, 옷 등이 온갖 종류의 풀과 꽃, 과일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각 계절에 맞는 식물과 과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봄은 청년기지만 겨울로 갈수록 점점 노인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20]

19) 이탈리아의 화가. 1562년 프라하로 가서 페르디난트 1세 ·막시밀리안 2세 ·루돌프 2세의 3대를 섬기는 궁정화가로서 1582년까지 체재. 동물과 식물을 아울러 사람의 머리를 형용한 괴기한 환상화 《여름》, 《겨울》, 《물》, 《불》 등으로 유명

20)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622&cid=46720&categoryId=46807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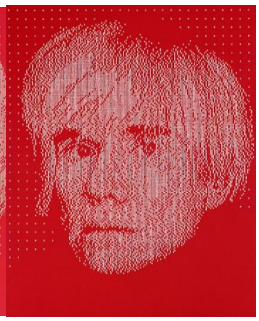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두오키(桔多淇)[21] 작품 이해

<그림 5 : 부추 빈센트 반 고흐> <그림 6 : 두부의 꿈> <그림 7 : 무와 배추의 입맞춤>

각종 채소를 이용해 만든 주두오키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걸작들을 채소로 재탄생 시켰다. 피카소의 꿈을 패러디한 <두부의 꿈>, 빈센트 반 고흐를 패러디한 <부추 빈센트 반 고흐> 등의 작품이 있다. 감자, 고구마, 당근, 양파, 마늘, 콩 등 우리 주변의 채소들을 그대로 혹은 가공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작품이다.[22]

이동재[23] : 쌀을 이용한 정신적 생명력 표출



<그림 8> <그림 9>

21) 주두오키. 1973 충청. 쓰촨 미술대학 졸업. 웹 사이트 디자인, 게임개발, 애니메이션 관련 종사 중 2005년 베이징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 시작.
22) 꾸브와제, 「먹거리 아티스트 주두오키(桔多淇)의 채소박물관」, 블로그, 2008.12.0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egel&logNo=100058188088&parentCategoryNo=33&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23) 이동재. 44. 미술인. 1974~. 가나아트갤러리 소속의 작가. 쌀그림 작가로도 유명한 이동재는 쌀 이외에도 녹두나 콩 등의 곡물들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입자를 통한 독특한 화면구성을 선보이는 작가이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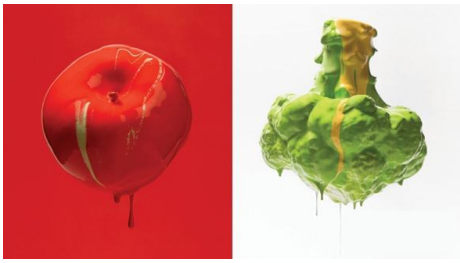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쌀을 비롯한 곡물을 중심적 재료로 삼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초상을 제작하는 작가로 아크릴로 바탕색을 칠한 캔버스에 쌀알을 이용해 반복적인 배열을 형성하는 표현 방식이다.[24]

파멜라 미셸 존슨 (Pamela M Johnson)[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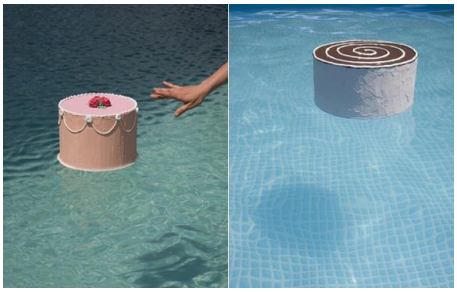
<그림 10 : '아메리칸 스틸 라이프'! >

노세환[26]



<그림 11 : 사과와 브로콜리로 질문하는 남자>

제신다 러셀 (Jacinda Russell)[27]



<그림 12 : 수영장에 띄운 케이크>

제니퍼 루벨 (Jennifer Rubell)[28]

<그림 13 : 맛보고 삼키는 아트>

24) 하계훈, 「이동재-쌀알을 통한 정신적 생명력 표출」, 김달진 미술연구소, http://www.daljin.com/column/2918
25) 파멜라 미셸 존슨(Pamela M Johnson),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 공대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에서 토목공학과 아트를 복수 전공했다. 4년간 건축업계에서 일하다 아티스트로 본격 전향했으며 미국인의 식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26) 노세환. '기획된 세계Projected World'를 키워드로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을 각종 먹을거리로 위트 있게 해석하는 작가. 경희대학교에서 회화를, 런던 슬레이드Slade 미술대학원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했다. 서울 시립미술관, 코리아나 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27) 제신다 러셀(Jacinda Russell), 음식을 포함한 일상의 사물을 작품 소재로 삼아 따뜻한 느낌의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 보이시 주립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순수 미술과 사진을 전공했다.
28) 제니퍼 루벨(Jennifer Rubell), '미술에 대한 금기'를 주제로 다양한 설치, 조각, 행위 예술을 선보인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과 무대가 많은 것이 특징.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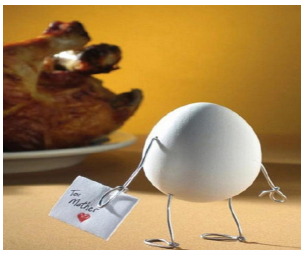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0>은 음식을 세팅하고 카메라에 촬영한 후 캔버스에 그리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사진이다. 대부분 작품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이루어진다. 때로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고,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추구하는 미국의 식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1>은 진짜 식품과 페인트, 금속을 동원해 만든 작품이다. 위 사진은 사과와 브로콜리를 흰색, 빨간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 색의 페인트 통에 담갔다가 금속 막대를 꽂은 후, 6시간가량 지난 후 페인트가 녹아떨어질 때 찍은 사진이다. <그림 12>는 스티로폼위에 케이크처럼 꾸민 작품이다. 완성된 케이크를 수영장에 띄우고 촬영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리즈 물로 현재까지 9개의 작품이 존재한다. <그림 13>은 엄청난 양의 레몬, 바나나와 살라미 소시지를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 무대 한가운데에 차리는 형식의 작품이다. 거리에 바나나를 산처럼 쌓아놓거나 수백 명이 함께하는 야외 만찬 테이블 중앙에 엄청난 양의 바게트를 일렬종대로 올려놓는 식이다.[29]

비비 맥 (Vivi Mac)[30]

<그림 14 : 우유로 그린 마이클 잭슨>

테리 볼더(Terry Border)[31]



<그림 15 :엄마, 무슨 일이?>

<그림 14>는 엎질러진 음료를 이용해 그린 작품이다. 작품의 주제는 주로 유명인들의 초상화이며 음료를 엎지른 후 빨대와 숟가락을 이용해 빠르게 그리는 스피드 페인팅 방식이다.

29) 정성갑,「음식, 아트가 되다!」LUXURY. http://luxury.designhouse.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68656&c_id=00010003

30) 비비 맥(Vivi Mac). 프랑스. 푸드아티스트. 주로 음식 혹은 음료를 엎질러 빨대나 숟가락 등으로 그려내는 스피드 페인팅으로 자신의 작품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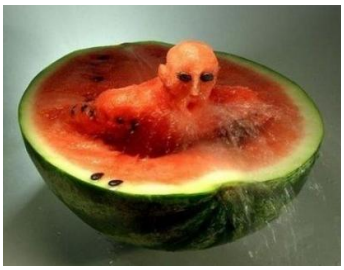
31) 테리 볼더(Terry Border). 1965.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냄. 1988 미술 사진 학사 학위 취득. 상업 사진 작가로 활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15>는 모든 사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모토를 기반으로 삼아 일상 속의 사물이나 물체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작품이다. 사진 작품으로 작품 속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녹아들어 있다.[32)]

기타 과일을 이용한 미술표현 작품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이처럼 푸드아트란 음식이나 식품, 음료 등으로 하는 예술이다. 이처럼 푸드아트는 장소 자체를 캔버스처럼 쓰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음료로 빠르게 그림을 그리거나 과일을 깎거나 연결하고 음식 위에 무언가를 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캔버스를 대신해 접시와 식탁을 쓰고 물감과 연필 대신 식품을 이용한다. 정교하게 모인 식품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형식이다.

③ 푸드아트 테라피 (Food Art Therapy)의 정의와 효과

푸드아트 테라피란 음식이란 뜻의 Food와 예술이란 뜻의 Art, 치유란 뜻의 Therapy의 합성어로 치료에 푸드아트를 접목시킨 통합적인 예술치료이다. 즉, 푸드아트는 식품을 통해 작가의 생각이나 내면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 이라면, 푸드아트 테라피는 식품을 이용한 내면을 표현하며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과정을 통해 심리적

32) 이자영, 「[Opinion]음식으로 그림을 그리다-푸드아트[시각예술]」, 아트인사이드, 2015.01.28. http://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133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정과 치유를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푸드아트 테라피는 푸드아트와 다르게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며 내면세계를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고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심리적 웰빙을 함양시키고 자아를 찾고 성장하며, 더 나아가 과거의 상처와 힘든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심리치료이다.(이정연, 2008)[33]

푸드아트 테라피의 특징은 '통합적인 접근'이다. 보통 다른 일반적인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가진 내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을 위주로 진행되거나 내담자의 내면의 성장을 목표한다. 그러나 푸드아트 테라피는 내담자가 느끼는 내면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자아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상담목표와 기법의 성격에서도 통합적인 부분이 있다. 푸드아트 테라피는 언어적인 기법과 비언어적인 기법이 공존한다.

즉,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되는 미술치료이다. 동시에 말로써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소통과 연결로 관계를 형성하며, 작품의 의미 해석, 새로운 자아의 통찰과 이해, 자아 성장 등의 전 과정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언어적 상담과 미술을 통한 상담이 서로 섞여 공존한다는 점에서 푸드아트 테라피는 다른 심리치료와는 다르게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푸드아트 테라피는 미술작품 속의 상징적 의미로써 드러나는 문제들을 내담자가 들여다보게 해주며, 언어로써 표현하고 성찰하며 결과적으로 자아가 성장하고 서서히 회복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푸드아트 테라피는 예술 활동 과정을 통해 자아성장을 꾀하며 내면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접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미술치료인 것이다.

이러한 푸드아트 테라피를 접하게 되었을 때 내담자가 얻는 효과이자 푸드아트 테라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내담자의 자아성장의 기반이 되는 긍정의 힘을 길러준다.

이 긍정의 힘의 양성은 반복되는 작품의 완성으로 얻는 성취 만족감과 표현활동을 통해 무의식 속의 부정이 승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부정 안에서

33) 이정연, 목포대학교 교수, 2005년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을 개발 및 발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긍정을 찾는 반복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의 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의 괴로움을 희석시켜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일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지니게 한다. 긍정이 곧 심리를 치유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활용할 때 상담자는 항상 내담자가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때 겪었던 것은 부정적인 일이지만 그로 인해 현재 가진 긍정적인 면을 스스로 찾아보고 앎으로써 자가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식품을 통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리에 위안을 준다. 또한 식품을 매개체로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와 방어기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면접이나 수능같이 중요한 일이 있기 바로 전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 껌을 씹으면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무언가를 먹게 되면 뇌가 현재 상황은 위험하지 않은 안전 상황이라고 인식하며 그에 의해 조금씩 긴장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먹는다는 행위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것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그 자체로 활기와 에너지를 준다. 푸드아트 테라피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놀이적 성격을 띠는 즐거운 체험학습이다.

셋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식품의 장점뿐 아니라 예술 작품의 이점도 가지고 있다.

예술 작품을 스스로 직접 만들었다는 만족감과 예술 작품을 볼 때 느끼는 긍정적인 희열과 행복을 느낀다. 내담자는 자신이 만든 예술작품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 성취감으로 발전해 자기 효능감의 향상을 얻게 된다. 동시에 내담자는 자신의 작품 속의 의미를 통해 자아를 새롭게 알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푸드아트 테라피가 가진 장점 중에서, 본 연구의 중심 주제는 '자신감의 함양과 자존감의 성장'이다. 푸드아트 테라피는 작품에 감정을 담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다짐과 코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이 직접 하는 코치는 서서히 자신감이 향상되며 결국 자존감까지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내담자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긍정적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피드백과 응원을 받음으로써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지지와 교류를 통해 대인관계 함양의 효과와 놀이 형태의 진행과정으로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 되는 효과가 있다.[34] 자아가 성장하고 확립되어가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의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푸드아트테라피의 대상 연령은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식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표현을 어려워하는 청소년에게 유용하다. 또한 방어기제가 적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방하며 작품 표현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으로 학업 스트레스 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

둘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자신의 내부의 중심의 주제를 깊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시간을 공부로 보내고 있다.

공부시간 외의 쉬는 시간에 접하기 쉬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 유희거리에 집중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관찰할 시간이 적다.

이에 대해 푸드아트 테라피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장 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또한 수업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으로 서로가 표현하는 자신을 보고 들으며 상호작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

셋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학생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써 창조력을 발산하게 하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미술이 가진 심미적 놀이라는 장점과, 음식이 가진 먹는다는 행위의 긴장 완화와 즐거움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스트레스가 해소가 극대화 되는 효과가 있다.

넷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창의성의 함양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작품을 계획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연상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접해보지 않은 식품을 매개체로 한다는 점 역시 이점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와 색상 및 크기를 가진 식품을 이용해 자유로운 표현 기법을 스스로 창작하게 된다. 이러한

34) 고현 외 4,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경기: 정민사, 2016 285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작품 과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창의성과 가치를 알게 된다.

다섯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학생의 내면을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들여다보며 자아를 알게 해주고,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장점들을 앎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푸드아트 테라피의 '교육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작품에 덧붙이고 담아낸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자유를 위해 상담자는 학생들의 작품에 간섭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로만 참여해야 한다.

둘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학업에서 느끼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놀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음식이 가진 유희성과 미술이 가진 유희성이 만나 학생들이 보다 즐겁게 임하게 한다.

셋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창의성 계발에 이바지한다. 푸드아트 테라피의 과정 중에는 상상을 통해 예술작품을 구성하고 그 작품의 부정적인 일부분을 부수거나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창의력이 함양되는 것이다.

넷째, 푸드아트 테라피는 집단적 역동성이 강하다. 푸드아트 테라피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다. 실제로 푸드아트 테라피는 작품을 만들 때 놀이와 교육과 치료가 계속해서 연결된다. 푸드아트 테라피를 수업에 활용하면 수업인 동시에 놀이적 성격을 가져 스트레스의 해소의 장이자 쉬어갈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놀이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며 더불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게 된다. 더불어 교사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진단으로 학생들이 가진 문제나 고민 걱정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좋은 점을 찾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35]

푸드아트 테라피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교류와 상호작용 중심의 상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담 과정은 지시적이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며 그 작품의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35) 김양희, "푸드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2009, 11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푸드아트 테라피의 작품에는 자유롭게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고 내면을 표현하는 은유적 이미지와 내면의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상담자는 작품에 표현된 문제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더욱 집중한다. 내담자가 느끼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바로 내담자의 자아의 존재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푸드아트 테라피는 내면의 상태에 따라 문제의 무거움과 정도가 달라지는 등의 발전이 있으며 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시선을 기를 수 있는 관점에 대해 다룬다. 철저한 내담자 중심의 심리치료 방식으로 내담자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며 내담자의 작품을 통해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공감하는 방식인 것이다. 또한 자아의 성장을 목적으로 성장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성장 한 후 보이게 되며, 이를 통해 그 문제를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자아의 성장으로 내담자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고, 과거의 문제와 미래에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새로운 방향에서 보게 되며, 그로인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면들에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즉, 굳이 문제 해결에 파고들기 보다는 자아를 성장시켜 굳건하고 건강한 자아를 통해 다른 문제들을 자연적이게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푸드아트 테라피는 작품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더욱 새롭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결국 내면의 뿌리인 자아가 건강해지는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이정연, 2006)

2) 푸드아트 테라피 응용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푸드아트 테라피의 효과와 목표를 중심으로 수업에 응용하기 위해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만으로 끝내지 않고, 나 자신을 알고 자아를 성장시키는 것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미술 치료 프로그램들을 융합하고자 한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치료해야 할 대상, 개인의 상태,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그램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성격으로 나뉜다. 예방과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예방과 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집단적으로 시행되는 팀 프로그램이 보편적이다. 진단 프로그램은 다른 검사 프로그램들의 보조적 역할을 하지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또한 학교 수업 현장에서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의 성격과 흥미, 내면과 환경을 알고 생활지도나 학교 상담의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진단 프로그램엔 대부분 투사 기법이 쓰이며 예방과 진단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명	방법 및 효과
인물화 검사	준비물 : A4용지 2장, 4B연필 방법 : 종이 한 장을 제시하고 사람 모습을 그리도록 돕는다. 이때 남자상, 여자상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으며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면 그 그림에 그려진 성과 반대되는 성을 그리도록 유도한다. 두 장의 그림이 완성되면 그려진 인물에 대한 생각과 인물의 성격과 배경,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 효과 : 인물화 검사는 다른 투사검사 중 가장 깊이 있는 무의식적 심리 현상을 표출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성인, 아동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언어를 대용하는 그림을 통해 내면 욕구, 개념, 생활 경험의 표현과 환경에 대한 지각과 자아상의 투사, 무의식 안의 세계의 동기, 욕구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준다.
집, 나무, 사람 검사	준비물 : A4용지 4장, HB 혹은 4B연필 방법 : 종이를 가로로 제시하면서 집을 그리도록 돕는다. 다음에는 종이를 세로로 제시하고 나무를 그리도록 한다. 다음에는 종이를 세로로 제시하고 사람을 그리되, 전체 모습을 그리며 막대 사람이나 만화 주인공은 그리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이번에는 몸 전체가 다 그려진 전신의 사람을 한 명 그리도록 한다. 효과 : 집, 나무, 사람 검사는 내담자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며 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게 하는 자아 발견에 이바지한다. 노인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활용되며 이 기법은 내담자의 저항이 적고 한 내담자가 여러 번 그려, 그린 작품들을 비교함으로써 질병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적 집, 나무, 사람 검사	준비물 : A4용지 1장, 4B연필, 지우개 방법 : 종이를 가로로 제시하고 집, 나무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리되, 막대 사람이나 만화처럼 그리지 말 것을 안내한다. 효과 : 동적 집, 나무, 사람 검사에서는 사람은 나무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기능을 나타내고 집은 개인 생활의 물리적 환경 측면을 반영한다. 나무는 그리는 사람의 개인적 변화 가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역동성을 부여해 양적, 질적으로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
동적 가족화 검사	준비물 : A4용지 1장, HB 혹은 4B연필, 지우개 방법 : 종이를 두고 내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돕는다. 이때 막대 사람, 만화 주인공의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며 꼭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안내한다. 가족 전원이 동시에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어도 되고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되며 행동이 무엇이든 자유라고 보충한다. 효과 : 가족 화에 움직임을 첨가한 것으로 개인을 통한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기에 좋다. 연령순이나 지위 순으로 그리는 가족화의 단점을 보완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투사하게 된다. 자아개념과 관련된 측면, 대인관계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며, 내담자의 주체적,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가족 인지가 표현된다. 이 검사를 통해 내담자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
풍경 구성법 검사	준비물 : 도화지, 흑색 사인펜, 12색 혹은 24색의 크레파스나 색연필 방법 : 4면에 테두리가 그려진 종이를 제시한 후 흑색 사인펜을 이용해 강, 산, 밭,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 등을 하나를 그린 후 다음 것을 그리도록 유도하며 차례대로 풍경이 되도록 그리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에 더 추가하고 싶은 사물이 있다면 추가하도록 유도한다. 그린 후에는 12색 내지 24색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색을 칠하도록 돕는다. 그림이 완성된 후 사계절 중 언제인지, 몇 시경인지, 강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사람은 몇 살이며 어느 성별인지 날씨는 어떤지 질문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효과 :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자아, 심리상태와 정신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치료 가능성의 평가와 문제점의 추측과 관찰에 유용하다.
난화 이야기법	준비물 : A4용지 1장, 12색 색연필 방법 : 마치 어린 아동이 아무렇게 그린 낙서처럼 긁적거리듯 종이에 그리도록 유도한다. 그 후 긁적이듯 그려진 그림 속에서 모형을 두 개 찾도록 안내한 후 그 모형을 통해 하나의 문장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점, 선, 면, 곡선과 직선 자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효과 : 내담자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에 저항이 있는 잠복기의 내담자에게 사용된다. 은유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사소통을 위한 기법으로 이미 지난 전이된 자유 이미지 연상을 유발한다. 심리치료나 언어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난화를 제시하고 그림을 완성하게 한 후 질문을 해 이야기를 꾸미게 한다.
물고기 가족화 검사	준비물 : A4용지 1장, 연필 또는 4B, 12색 색연필 방법 : 종이에 어항을 그린 후 어항 속에 물고기 가족을 그리도록 안내한다. 색칠도 해보며 어항 내부를 자유롭게 꾸며도 되며 가족의 수만큼 물고기를 그린 후에는 꼭 누구 물고기인지 이름을 쓰도록 안내한다. 효과 : 가족 내에서 내담자가 받는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대인관계나 내담자 개인의 성격 등이 표출되는 그림이다. 이 검사 방법은 그림에 자신이 없거나 인물 등을 잘 그리지 못하는 성인에게도 잘 사용되고 있으며 남녀노소 자신의 문제점이 쉽게 나타나는 기법이다. 가족관계, 또래관계의 이해와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어항은 내담자의 마음 세계로 물고기들의 표현 방법을 통해 가족 간의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내담자의 설명을 들으면 정확한 갈등과 억압 상태 등을 알 수 있다.
빗속의 사람 검사 빗속의 사람 검사	준비물 : A4용지 1장, 4B연필, 지우개 방법 : 종이를 제시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 환경의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라고 안내하며 막대 사람이나 만화 사람의 표현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그림의 모양, 크기, 위치와 방법에 대해 어떠한 조언도 주어서는 안 되며 내담자의 질문에는 자유라고 답한다. 그림이 끝난 후 그린 순서와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하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효과 : 내담자의 자기개념을 알 수 있고 외부 환경에 대한 지각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림 속의 인물이 비가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와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불쾌하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으며 내면의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다.
동적 학교생활화	준비물 : A4용지 1장, 4B 혹은 HB 연필, 지우개 방법 : 자신을 포함해 선생님과 한 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하되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사람을 그리도록 안내한다. 이때 모두가 무엇이든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강조한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라고 답한다. 효과 : 학교 내의 교사, 친구의 행동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업성취를 파악하며 주변인에 대한 감정 및 대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길 그림 검사	준비물 : B 절, A3 용지,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 채색 도구 방법 :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길을 연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 길을 보았을 것이고 그 길 중 하나를 떠올리도록 유도한 후 그 떠올린 길에 대해, 그 길은 고속도로인가요? 국도인가요? 곧은 길인가요? 굽은 길인가요? 진흙으로 된 길인가요? 아스팔트로 된 길인가요? 도로의 상태는 어떤가요? 한 갈래의 길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갈래나 차선이 있나요? 교차로는 없나요? 있다면 무슨 형태인가요, 등 길에 대한 연상을 돕고 자유롭게 그리도록 유도한다. 효과 : 내담자의 출생부터 인생 여정, 삶의 경험, 미래 계획 들을 반영한 무의식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살 생각의 유무를 알 수 있어 극단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만다라 검사	준비물 : 문양이 그려지거나 문양을 그릴 A4용지, 연필, 자, 컴퍼스,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등 방법 : 가장자리나 안쪽이나 편안대로 색을 칠해나가도록 안내하고 색을 다 칠한 후에는 먼저 칠한 색상을 순서대로 표기하게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효과 : 만다라는 도형을 그린 후 색칠함으로써 내담자의 내적 균형을 잡게 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과정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역할을 한다. 더불어 삶의 본질, 자신의 중심에 이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다.

<표1 미술치료 진단 프로그램>

본 연구는 치료 프로그램인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과 위의 진단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새로운 수업 방안을 창출하고자 한다.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 작품을 통해 자아를 찾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자연 치유적인 푸드아트 테라피의 장점과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류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방지 및 예방하는 진단 프로그램의 장점의 두 기법을 혼용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술수업 과정 중 미술치료 기법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미술수업에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한다. 중학교 미술교육 과정의 목표는 전인적 인간의 육성이다. 더불어 미적 감수성과 미적 인식의 함양, 창의적인 표현 능력, 미술작품의 비평과 감상 능력 등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학교 미술 과정 중 내용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적 체험 영역은 학습자의 개인 수준을 생각해 자연과 생활 속의 시각문화 환경에 대해 탐색하고, 탐구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등의 목표로 학습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표현 영역은 주제의 특징과 목적에 따른 표현 방법과 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며 표현하는 과정과 표현의 확장을 경험하고 학생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감상 영역은 미술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적 특징들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미술치료기법을 미술 수업 내에 적용하기 위해 현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미술 교과서 중 교학사, 천재교육, 미진사의 교육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학사			
영역	대단원	소단원	
체험 영역	체험의 즐거움	-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 자연물과 인공물의 조화 - 나와 주변 환경 - 더불어 사는 세상 - 생활과 함께하는 시각문화	
표현 영역	표현의 즐거움	- 어떻게 표현할까 - 조형요소와 원리 - 선으로 나타내기 - 정물의 아름다움 - 생활 주변의 풍경 - 인물의 아름다움 - 판을 이용한 표현 - 추상으로 표현하기 - 느낌과 상상의 표현 - 일상의 표현	- 다양한 동물의 세계 - 참인가, 거짓인가 - 움직임이 반영된 미술 - 그림이 화면 밖으로 나가다 - 몸으로 표현하는 미술 (Performance) - 입체의 아름다움 - 다양한 현대조소 - 사진으로 보는 세상 - 빛과 영상으로
	전통미술의 아름다움	- 전통회화의 멋 - 우리의 산천을 그린 진경 산수화 - 서예의 조형미 -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	- 서각과 전각의 아름다움 - 전통회화의 새로운 표현 - 흙과 불의 만남
	생활 속의 미술	- 색채의 세계 - 패션, 미술을 입다 - 아름다운 포장 - 만화와 애니메이션 - 디자인의 흐름 - 나무의 특성을 살려서 - 아름다운 조명	- 사용자를 생각하는 디자인 - 기호와 그림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 현대 생활용품의 기능과 아름다움 - 생활용품이나 장식품 만들기 - 의자의 실용성과 아름다움
감상 영역	보고 느끼는 즐거움	- 한눈에 보는 미술사 - 미술의 흐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전통 문화유산과 미술 - 미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 - 미술비평

<표2 교학사 교육과정>

미진사		
영역	대단원	소단원
체험영역, 미술과 세계	사람을 말하다	- 나의 발견 - 너와 나, 우리 - 미래 바라보기
	자연을 만나다	- 자연의 느낌 속으로 -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공간
	문화를 만들다	- 우리가 사는 공간 - 우리가 쓰는 물건 - 우리가 만드는 시각 정보 - 축제와 기원
표현영역, 조형의 세계	조형과 만나다	- 빛과 색 속으로 - 색으로 말하기 - 선을 따라서 - 전통회화의 조형을 살려 - 전통 서예의 멋을 살려 - 입체로 표현하기 - 아름다움의 비밀
	보는 방식에서 시작하자	- 감각, 우연, 충동 - 보이는 대로 보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다양한 질서로 보기 - 낯설게 보기
	이미지는 살아있다	-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미지 - 흥미로운 연속 이미지
감상영역, 감상의 세계	감상이 즐겁다	- 미술과 친해지기 - 미술관으로 떠나는 문화 산책
	알고 보면 더 잘 보인다	- 아는 만큼 보이는 미술 - 미술의 경계를 넘어서 -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미술 - 나도 비평가
	미술사가 보인다	- 시대별로 보는 우리 미술 - 흥미로운 아시아 미술 - 서양 미술탐험

<표3 미진사 교육과정>

천재교육			
영역	대단원	소단원	
체험영역	체험하는 미술	- 새로운 눈으로 -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 인간과 자연의 조화 - 나를 소개합니다.	
표현영역	미술과 조형	- 조형요소의 발견 - 색의 탐험 - 조형원리의 세계	
	미술에서의 주제	- 나만의 주제로 - 대상의 특징을 살려서 - 경험 속으로	- 상상의 세계로 - 추상의 세계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매체와 표현의 확장	- 평면으로 표현하기 - 판을 이용한 표현 - 입체로 표현하기 - 새로운 표현 방법의 탐험	
	소통하는 미술	- 의미를 담은 시각 문화 - 공공장소에 놓인 미술 - 함께 만드는 이야기	- 우리를 둘러싼 시각 문화 - 시각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디자인과 생활	- 디자인의 시작 - 이야기가 담긴 시각 디자인	- 다양한 가치를 지닌 제품 디자인 -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환경 디자인
	전통의 향기	- 채색의 아름다움 - 점과 획의 만남, 서예 - 살아있는 전통	- 수묵, 수묵담채의 아름다움 - 옛 생활에 담긴 아름다움
감상영역	미술 비평하기	- 미술에 대한 생각 - 창작의 공간 속으로 - 미술작품과 나누는 대화 - 살아있는 미술관	
	미술의 역사	- 미술사 이야기 - 미술로 본 문화 - 미술문화의 교류 - 세계 미술사 연대표 퀴즈	

<표4 천재교육 교육과정>

이처럼 교학사는 체험 영역이 18페이지, 표현 영역 126페이지, 감상 영역 2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 영역 안에는 기본 원리인 조형, 점, 선, 면, 풍경화, 추상화 뿐 만 아니라 전통 미술인 산수화, 서예, 전통 공예 등과 패션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환경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있다. 체험 영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주변의 풍경, 그리고 '나'라는 존재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와 세상을 접목시켜 조명했다. 감상 영역에서는 국내외 미술사와 그 흐름,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등의 영역이 있다.

미진사는 체험 영역이 54페이지, 표현 영역 90페이지, 감상 영역 4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 영역에서는 ‘나’, ‘너’의 개념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영역과 자연과 생활 속 환경과 물건을 중심으로 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현 영역은 회화 요소와 더불어 전통미술, 공예 등과 애니메이션, 추상화, 조소, 현대미술, 퍼포먼스 등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감상 영역은 각종 미술관과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동, 서양의 미술과 역사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천재교육은 체험 영역 16페이지로 가장 적은 량을 차지했고 표현 영역 144페이지, 감상 영역 44페이지로 구성되어있다. 체험 영역에서는 ‘나’에 대한 것과 자연에 대해 다루었다. 표현 영역에서는 조형 원리, 추상화, 판화, 공예, 조소, 사진, 영상, 디자인, 전통미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능력과 미술의 역사, 문화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교과서 단원 분석을 기반으로 미술치료를 더해 미술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활동을 기준으로 잡았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개인 뿐 아니라 주변의 사회적, 가정적, 대인 관계적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찾는다. 즉, 미술치료의 중심은 ‘나와 주변 환경’인 것이다. 주변 환경은 자연과 내담자가 살고 있는 공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과 내담자의 인간관계, 내담자의 사회적 관계의 상태 등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입각해 나를 알고 주변 환경을 알며,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 느끼는 과정인 ‘나’, ‘우리’, ‘환경’이 주된 체험 영역으로 선정했다.

3) 푸드아트 테라피가 적용된 미술수업 방안

본 연구는 체험영역에서 ‘나’에 관련된 단원을 자아 효능감의 향상과 연결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푸드아트 테라피의 주제인 나와 친구 만들기와 인물화를 적용한다. 학생의 내면 심리와 친구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시각에서 재조명을 하고 나와 친구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에 관련된 단원을 창의성 향상과 연결해 음식으로 어항과 풍경을 꾸미는 것을 통해 가족과 학생 사이의 학생이 가족에 대한 인식을 알고 재조명한다. 풍경 구성법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아상태, 심리상태와 정신적 특성을 파악한다. 생활환경과 관련된 단원에서 감성지능, 즉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동적 학교생활화와 동적 가족화를 통해 학교와 가족, 안팎의 문제를 알고 재조명해본다. 마지막으로 앞의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하는 단계로 긍정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동적 집, 나무, 사람 기법과 함께 안 좋은 기억을 표현한다.

또한 부정적인 일로 인해 자신이 가진 긍정적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안다. 비행, 따돌림, 극심한 반항, 자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알고 방지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와 스트레스로 불안정한 학생을 도와줄 수 있다.

수업 지도안 중, 1~2 차시는 미진사의 체험영역 중 '나의 발견'을 기준으로 삼았다. 3~4차시는 교학사의 '나와 주변 환경' 단원을 바탕으로 계획했다. 5~6 차시의 경우 미진사의 '우리가 사는 공간'에 생활을 더해 계획했다. 7~8차시는 교학사의 체험영역 중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바탕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작품의 해석은『미술교육과 미술치료』(고현 외 4)를 참고해 이루어졌으며, 본 지도안은 주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table>
<tr><td>대단원</td><td colspan="4">체험영역</td><td>차시</td><td>1/8</td></tr>
<tr><td>소단원</td><td colspan="4">나를 마주하다. -나의 무의식의 발견-</td><td>대상</td><td>중학교
1학년</td></tr>
<tr><td>학습형태</td><td colspan="6">개인학습, 토론, 발표</td></tr>
<tr><td>학습자료</td><td>교사</td><td colspan="2">예시자료, PPT</td><td>학생</td><td colspan="2">교과서, 필기도구</td></tr>
<tr><td>학습목표</td><td colspan="6">• 푸드아트 테라피가 무엇인지 말 할 수 있다.
• 푸드아트 테라피의 효능에 대해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td></tr>
</tabl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결확인 ▸ 단원 설명 : 앞으로 배우게 될 8차시의 단원의 진행과정을 소개한다. ▸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명상 음악이나 학생들과의 가벼운 담화 등의 요소를 사용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PPT 를 통한 수업을 하기 전, 주의를 집중시킨다.	▸ 선생님께 인사 ▸ 앞으로 배우게 될 8차시 단원을 이해하며 전 수업의 연결성을 이해한다. ▸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한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필기도구를 꺼내 메모할 준비를 하고 수업에 임할 마음가짐을 다잡는다.	8개 차시 연계성을 잘 설명한다. 미리 빔 프로젝트를 점검해 둔다.
전개 (35분)	▸ PPT를 통해 일반적인 '아트'로서의 푸드 아트 예시 작품을 보여주며 동기유발과 함께 흥미를 끈다. • 푸드 아트 : 아티스트의 예술 작품들을 예시자료로 보여준다. <그림 19>	▸ 푸드아트 예시작품을 감상한다. • 각종 예시 자료를 통해 푸드 아트에 대해 이해한다. <그림 19>의 표현 방법과 <그림 20>와 <그림 21>의 표현 방법을 비교하며 감상한다.	만일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는 ~에요. 라고 알려준다. 또한 재차 ~는 ~라고? 라고 되물으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0> <그림 21> ▸ 일반적인 '푸드아트'와 '푸드아트 테라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테라피의 뜻이 뭘까요?' 등의 질문을 한다. ▸ 푸드아트 테라피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 푸드아트 테라피를 하는 이유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 푸드아트 테라피의 예시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어떤 작품 같아요?' 등 작품 속의 상황에 대해 질문해 간단하게 학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인물과 관련된 예시 자료를 보여준다.	▸ '푸드아트'와 '푸드아트 테라피'의 차이점을 알며 선생님의 '테라피의 뜻이 뭘까요?' 등의 질문에 '치료요!' 라고 대답한다. ▸ 푸드아트 테라피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 푸드아트 테라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안다. ▸ 예시 작품들을 감상하며 선생님의 질문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나 상황 등 보이는 대로 답한다. • 각종 예시 자료를 통해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해 더욱 깊게	다시 한 번 지식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22> • 가족과 관련된 예시 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23> • 동물에 관련된 예시 자료나 식물에 대한 예시 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24> • 그 외에도 다양하고 기발한 표현 방식에 대한 예시 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25>	이해하며 앞으로 만들게 될 것들에 대해 연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해 간략히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장점과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 다음 수업 시간에 하게 될 것들과 연관 지어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작품을 만들지 등을 예시로 든다.	▸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장점과 효과에 대해 이해한다. ▸ 지금까지 본 예시 작품들을 참고해 다음 시간에 할 작품의 표현 계획을 잠깐 구상해본다.	
정리 (5분)	▸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 다음 수업시간에 할 내용과 준비물을 말하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떠올린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의 준비물을 메모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준비물의 예시를 말해줘 되도록 색깔별로 구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표5 수업 지도안1-1>

대단원	체험영역			차시	2/8
소단원	나와 친구를 마주하다. -나, 그리고 친구의 재발견-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습형태	개인학습, 토론, 발표				
학습자료	교사	A4용지	학생	교과서, 식품, 필기도구	
학습목표	• 푸드아트 테라피와 인물화 기법을 통해 자신의 자아상과 자신의 친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과 성격과 부정적인 특성과 성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 자아를 발전시킬 계획과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말할 수 있다. • 자신의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알고하고 칭찬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결확인 ▸ 단원 설명 : '나의 발견' 단원에 대해 저번시간에 했던 것과 이번 시간에 할 것을 설명한다. ▸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명상 음악이나 학생들과의 가벼운 담화 등의 요소를 사용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A4용지를 나누어준 후, 학생들이 각자 준비해온 식품들을 꺼내게 한다.	▸ 선생님께 인사 ▸ '나의 발견' 단원을 이해하며 전 수업의 연결성을 이해한다. ▸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한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용지를 받은 후 식품들을 꺼내 표현활동을 할 준비를 한다.	사전재료 준비에 대해 전 시간에 준비물로 안내가 꼭 되어야 한다.
전개 (35분)	▸ 인물화 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나와 나의 친구에 대해 만들어 보라고 유도한다. 작품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학생의 예시 작품이나 인터넷을 통한 예시작품을 보여준다. ▸ 완성한 후 학생들에게 종이의 빈 공간에 '작품을 만들며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 외의 그림 속의 사람에 대한 쓰고 싶은 사항'에 대해 쓰도록 안내한다. 또한 이 작품을 만들 때 신경 썼던 것과 이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멋진 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친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의 설명을 적게 한다.	▸ A4용지에 선생님의 안내와 보여주는 예시 작품을 참고해 자유롭게 자신과 친구를 식품으로 만든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만들 때 신경 썼던 것과 이 친구가 누구이며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등 떠오르는 것들을 쓴다.	나의 친구가 해주는 나에 대한 좋은 말과 칭찬이 가장 중요한 파트이다. 시간을 들여 조별로 큰소리로 자신의 작품의 친구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학생들에게 되도록 작품을 하면서 나에 대해 느꼈던 점들을 자꾸 묻고 떠올리고 돌아보도록 유도한다. ▸ 칭찬하기 : 조원들과 함께 서로의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공감을 나눈다. ▸ 작품을 테이블 별로 사진기로 찍어 보관한 후 즐겁게 먹는 시간을 가진다.	▸ 작품을 만들며 느꼈던 감정, 생각, 만든 후의 느낌을 떠올리며 자신의 내면과 자아에 대해 안다. ▸ 안내에 따라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눈다. ▸ 사진으로 작품을 찍고 난 후 작품에 사용된 식품이나 남은 식품들을 먹는다.	말하며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자아 효능감 향상에 좋다.
정리 (5분)	▸ 본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의 기분을 묻는다. ▸ 다음 수업시간에 할 내용과 준비물을 말하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 느낀 점이나 기분을 말한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의 준비물을 메모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학생이 기분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표6 수업 지도안1-2>

위의 표는 푸드아트 테라피에 인물화 기법을 적용해 학생의 자아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업 방안이다. 1차시 지도안에서는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앞으로 2~8차시 동안 하게 될 푸드아트 테라피의 방법, 개념, 목적 등 예시 자료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다. 2차시 지도안에서는 본격적으로 인물화 기법을 통해 나와 친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칭찬해주는 과정으로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칭찬을 하고 또 받음으로써 자아 효능감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1차시는 학생들은 푸드아트 테라피의 개념을 알게 된다. 먼저 미술치료가 익숙하지 않을 학생들을 위해 일반적인 예술 작품으로서의 푸드아트를 접한 후 테라피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게 된다.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해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된다. 2차시부터 8차시까지 하게 될 대략적인 예시 작품과 다양하고 기발한 표현 방법 등을 접하며 자신은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게 되는 차시이다.

2차시는 푸드아트 테라피에 인물화 기법이 더해진 지도안이다. 이때 인물화 기법을 해석할 때는 인물의 위치와 크기, 그려진 선의 흐림과 선명함, 기본적 인체구조보다 훨씬 작거나 크게 그려진 것과 어깨의 위치, 팔의 위치, 발이 벌어진 넓이 이목구비의 비율 등으로 해당 학생의 문제점이나 현재 학생이 가진 심리적 고민 등을 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법은 식품으로 구성되어 인물은 그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들거나, 발의 넓이, 팔의 위치, 어깨의 위치 등 위치적인 것과 크기적인 면 등의 부분 정도만 해석하는 것이 좋다. 주의해야 할 점은 푸드아트 테라피를 이용한 수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석에 치중한 수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느껴지는 부정적인 문제점들보다는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즐거움, 다른 친구들의 작품에 대한 칭찬 등 본인의 자아를 위한 긍정적인 생각이 이 수업의 중심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에서 친구의 작품이나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고 즐기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친구의 작품이나 자신의 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해진 인물화 기법의 해석은 종이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위쪽이면 불안정한 자아 성과 연관이 있고 중앙보다 아래에 있다면 보다 안정된 상태이거나 우울감이나 패배감을 뜻한다. 왼편에 위치한다면 자아의식적이고 내향적 성향이 강함을 나타내며, 이때 왼쪽 하단은 아직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오른쪽 상단의 경우 이기적이거나 도전적이며 반항적인 성향이 크며 억지로 억압, 통제하기보다는 함께 대화하며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른쪽 하단의 경우 강한 심리적 억압으로 심한 노이로제나 신경증적인 성향이 있음을 뜻한다. 만일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왜곡되어 극적인 확대나 축소를 보이거나 어느 한 부분이 그려지지 않거나 가려져 있다면 걱정거리가 그 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체의 부분이 과장되게 강조하여 그려지거나 흐린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물화 기법을 통해 신체별로 의미하는 상징을 통해 학생의 성격이나 특징을 알 수 있다. 치아의 노출이나 손가락이 없는 주먹 쥔 손은 내면의 억제된 공격성을 의미하나 손가락을 만들 작고 가는 식품이 없어서 그냥 표현한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목이 가늘고 긴 경우 충동의 통제가 어렵고 굵고 짧은 목은 충동적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은 양자 감정으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도, 들지 않을 때도 있음을 나타낸다. 단추나 호주머니는 부모에 대한 의존을 나타낸다. 다리가 안으로 꼬인 형태는 성적 접근을 방어하려는 자세로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성적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나체상은 반사회적 성향, 정신분열 등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니 이 경우는 반드시 부모와 담임교사와 상의 후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이 차시는 수업의 초반기에 적용해 학생의 성격과 특성을 아는 가장 처음 기본적 도움닫기의 역할을 한다. 학생의 내면적, 자아와 관련된 문제, 고민거리를 알게 되는 첫 번째 장인 것이다. 또한 서로 간의 칭찬을 통해 자신감과 자아효능감이 생겨나게 되며 이 자아효능감으로 인해 다가올 많은 미래의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된다. 또한 자신을 굳게 믿고 어떤 목표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 도전정신, 끝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table>
<tr><td>대단원</td><td colspan="4">체험영역</td><td>차시</td><td>3/8</td></tr>
<tr><td>소단원</td><td colspan="4">나와 주변 환경 -나와 가족-</td><td>대상</td><td>중학교
1학년</td></tr>
<tr><td>학습형태</td><td colspan="6">개인학습, 감상, 발표</td></tr>
<tr><td>학습자료</td><td>교사</td><td>A4용지, 검은색 사인펜 10개</td><td>학생</td><td colspan="3">교과서, 식품</td></tr>
<tr><td>학습목표</td><td colspan="6">• 푸드아트 테라피와 물고기 가족 화 검사 기법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고 되돌아 볼 수 있다.
•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 친구의 해석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td></tr>
</tabl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결확인 ▸ 전 수업시간 회상, 단원 설명 ▸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명상 음악이나 학생들과의 가벼운 담화 등의 요소를 사용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A4용지 1장과 함께 한 조당 1~2개씩 검은색 사인펜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 선생님께 인사 ▸ 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며 오늘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한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A4용지와 네임 펜을 받고 식품을 꺼낸 후 표현활동을 할 준비를 한다.	전 수업시간에 한 기법을 언급하여 연상을 돕는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 후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전개 (35분)	▸ 물고기 가족화 기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 일단 받은 종이에 검은 사인펜으로 어항을 그리도록 안내한다. 그 후에 어항 속에 물고기 가족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때 가족의 수만큼 물고기를 만들며 그린 후엔 꼭 누구 물고기인지 엄마, 아빠 이렇게 이름을 쓰도록 유도한다. ▸ 물고기와 어항 주변을 장식해도 된다고 안내한다. 산소공급기나 자갈 등을 예로 든다. ▸ 물고기 가족화 기법의 해석에 따라 설명하고 학생들이 작품을	▸ 물고기 가족화 기법을 이해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한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먼저 어항을 그린 후 가족 수만큼 물고기를 만들고 누구 물고기인지 적는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장식하거나 마무리한다. ▸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이해하며, 자신이 어떻게	만일 학생이 발표하기를 꺼려한다면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발표한 학생은 점수를 주는 등의 보상을 준다. 가족에 관련된 사항이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만들 때 느꼈던 감정이나 가족에게 느끼는 감정 등 느꼈던 것들을 떠올리도록 질문을 통해 유도한다. ▸ 작품의 옆에 해석된 내용들을 문장으로 적도록 유도한다. ▸ 칭찬하기 : 조원들과 함께 서로간의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공감을 나눈다. ▸ 자발적으로 작품을 통해 느낀 점이나 해석에 대하여 발표 희망자에게 발표시킨다. ▸ 작품을 테이블 별로 사진기로 찍어서 보관한 후에 즐겁게 먹는 시간을 가진다.	가족에 대해 느끼는지를 알고 작품을 만드는 동안 느꼈던 느낌들을 떠올린다. ▸ 작품의 옆에 안내를 따라 해석한 내용들을 문장으로 적는다. ▸ 자신의 조원들과 각자의 그림과 해석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나눈다. 친구의 작품을 잘 살펴보고 친구 작품을 이해한다. ▸ 그림과 해석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 사진으로 작품을 찍고 난 후 작품에 사용된 식품이나 남은 식품들을 먹는다.	발표에 자율성을 둬야한다. 항상 학생들이 작품 하는 동안 알게 되는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 (5분)	▸ 본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의 기분을 묻는다. ▸ 다음 수업시간에 할 내용과 준비물을 말하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 느낀 점이나 기분을 말한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차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메모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꼭 학생이 기분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표7 수업 지도안 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단원	체험영역			차시	4/8
소단원	나와 주변 환경 -풍경, 자연, 세상-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습형태	개인학습, 감상, 발표				
학습자료	교사	A4용지	학생	교과서, 식품	
학습 목표	• 풍경 구성법 검사 기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아를 이해하고 되돌아 볼 수 있다. •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 친구의 해석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결확인 ▸ 전 수업시간 회상, 단원 설명 ▸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명상 음악이나 학생들과의 가벼운 담화 등의 요소를 사용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A4 용지 1장씩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 선생님께 인사 ▸ 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며 오늘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한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A4 용지를 받아 준비해 온 식품으로 표현 활동을 할 준비한다.	전 수업시간에 한 기법을 언급해 연상을 돕는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 속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전개 (35분)	▸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해 간결하게 복습 차원에서 언급한 후 풍경 구성법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기법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해 설명한다. ▸ 종이의 외곽에 사인펜을 이용해 가장자리를 그리도록 유도한다.	▸ 푸드아트 테라피를 떠올리고 풍경 구성법 기법을 이해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한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장자리를 그린다. 그 다음 강, 산, 밭, 길,	만일 학생이 발표하기 꺼려한다면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후 준비해온 식품들을 사용해 강, 산, 밭, 길,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 등을 만들되 한 폭의 풍경이 되도록 한다. 이때 꼭 말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나씩 진행되어야 하며, 형태나 크기는 자유롭게 그리도록 이끈다. ▸ 다 만든 후 추가하고 싶은 사물이 있다면 만들도록 돕느다. ▸ 풍경 구성법 기법의 해석에 따라 설명한다. 이때 무언가를 그렸는가에 의한 부정적인 의미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작품을 하면서 얻은 생각이나 즐거움 등 긍정적인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작품의 빈 공간에 해석된 것들을 문장으로 적도록 안내한다. ▸ 칭찬하기 : 조원들과 자신의 그림, 해석과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칭찬을 나누도록 유도한다. ▸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말하도록 설명한다. ▸ 작품을 테이블 별로 사진기로 찍어 보관한 후 즐겁게 먹는 시간을 가진다.	집, 나무, 사람, 꽃, 동물, 돌의 순서로 만들어 풍경을 구성한다. 모양, 위치, 형태는 자유롭게 표현한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하고 싶은 사물들이 있다면 추가하게 한다. ▸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이해하며 작품을 하면서 얻었던 즐거움과 친구들과의 협력 등 작품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느낌 등에 집중한다. ▸ 빈 공간에 안내를 따라 해석한 것들을 문장으로 적는다. ▸ 자신의 조원들과 각자의 그림과 해석을 이야기하고 칭찬한다. ▸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림과 해석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사진으로 작품을 찍고 난 후 작품에 사용된 식품이나 남은 식품들을 먹는다.	발표한 학생은 점수를 주는 등의 보상을 준다. 추가적으로 만드는 사물이나 그 밖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리 (5분)	▸ 본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의 기분을 묻는다. ▸ 다음 수업 시간에 할 내용과	▸ 느낀 점이나 기분을 말한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의 준비물을 메모	학생이 기분이 아니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준비물을 말하고 주변 정리를 하게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표8 수업 지도안 2-2>

위 2-1, 2-2 지도안은 새롭다고 느낄 수 있는 어항 속 꾸미기나 풍경화를 식품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수업이다. 이 수업 방안은 물감 채색처럼 여러 번 접해본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식품을 이용해 종이 안에 식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담는 창의적인 수업 방안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감소와 즐거움, 치료기법에 의한 정보의 습득,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에서 오는 창의성의 함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1 수업 지도안은 푸드아트 테라피에 물고기 가족화 기법을 활용한 수업 방안이다. 물고기 가족화 기법은 가족들의 위아래 위치, 바라보는 방향, 전체적 어우러짐 등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이때 주변에는 어항이나 수족관이나 그러한 것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식품을 통해 만들었을 지라도 위치와 작품 내 물고기들이 서로 마주 보는 동선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물고기 가족화 기법은 투명한 어항을 통해 '프라이버시가 없는 상태'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가족 내의 역동성을 물고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별다른 저항 없이 표현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이 가족에게 느끼는 소속감을 알 수 있으며, 동적 가족 화보다 별다른 저항 없이 접근할 수 있어 가족 안의 문제를 살피는데 이 기법을 선택했다.

이 물고기 가족화 기법은 학생 본인의 위에 있는 인물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학업, 시험, 친구 등 여러 방면에서 주는 부모의 충고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의 경우 의견 불일치로 인한 대립일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마주 보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나'와 같은 방향의 물고기는 친근함, 통일감을 가진 대상이다. 이빨이 드러난 물고기는 대상이 공격적인 것을 예상할 수 있고 특정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공기방울은 그 대상에 대한 불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품을 이용한 물고기 가족화에서 이빨, 비늘의 문양 등은 표현하기에 너무 작아 표현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고기 가족화 기법을 통해 학생이 가정에서 얻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학교나 교우관계, 다른 특정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가족이 학생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2 수업 지도안은 푸드아트 테라피에 풍경 구성법 기법을 활용한 수업 방안이다. 이 기법은 풍경화처럼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방법이다. 단, 기존의 전체적으로 그려나가는 풍경화와 다르게 주제의 표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종이에 산, 강, 길, 집, 나무, 꽃, 동물, 돌, 사람, 첨가되어야 할 것 등을 표현하게 되는데 산, 강, 길, 집, 나무, 꽃, 동물, 돌, 사람 순으로 넣게 된다. 이 기법은 개별적 상징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풍경이 되는 조화로움과 구성, 작품이 만들어진 계절, 시각, 기후, 강의 흐르는 방향, 사람과 집, 밭 등의 관계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주의해야 한다. 이 풍경 구성법은 자잘한 일부분의 해석에 치중하기보다는 언급한 전체적인 작품 전체의 분위기나 사물의 위치,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등을 더 중요시한다. 때문에 푸드아트 테라피를 통해 식품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풍경 구성법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색의 선택이다. 색채는 투영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교사의 색채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가 최소한 12가지 색연필의 색채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조력해주어야 한다. 식품들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색채, 파랑이나 검정, 회색 등의 색채들은 식용색소를 구비해 설탕이나 소금, 밀가루 등을 염색해 두는 등의 방법이 있다.

풍경 구성법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종이의 왼쪽은 과거를 뜻하고 오른쪽은 미래를 뜻하며, 강은 억울함을 뜻하며 강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 있다. 산은 고민거리로 산이 많을수록 현재 근심 걱정이 많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생이며 산의 위치로 그 고민이 언제 발생했을지 예측해 볼 수 있다. 논은 푸르게 익었을 경우 풍족을 상징하지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학업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또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이나 비행청소년에게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길은 막다른 길은 우울, 네거리의 길은 결정에 있어 고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은 가정 상황을 나타내며 나무는 자아상, 사람은 학생의 현실상이나 이상상을 나타낸다. 꽃은 붉은 꽃이 길가에 있거나, 산봉우리에 있는 꽃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가 깊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물은 상징성을 위주로 보며 돌은 전방을 가로막고 있을 경우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처럼 풍경 구성법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에 관한 단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도 푸드아트 테라피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면의 부각은 물론이고 학생이 겪고 있는 고민의 정도나 근원을 어림잡아 추측 가능하다. 또한 교사는 언어나 행동에서 수업의 흐름과 학생들의 생각, 명상을 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table>
<tr><td>대단원</td><td colspan="4">체험영역</td><td>차시</td><td>5/8</td></tr>
<tr><td>소단원</td><td colspan="4">우리가 사는 생활공간 -학교-</td><td>대상</td><td>중학교
1학년</td></tr>
<tr><td>학습형태</td><td colspan="6">개인학습, 감상, 발표</td></tr>
<tr><td>학습자료</td><td>교사</td><td>A4용지</td><td>학생</td><td colspan="3">교과서, 식품</td></tr>
<tr><td>학습목표</td><td colspan="6">•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학교생활화 검사 기법을 통해 자신의 교우관계와 학교안의 상황, 자신이 친구들을 보는 시선을 되돌아 볼 수 있다.
•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 친구의 해석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2">단계</td><td colspan="5">교수, 학습 활동</td><td rowspan="2">자료 및
유의점</td></tr>
<tr><td colspan="2">교사</td><td colspan="3">학생</td></tr>
<tr><td>도입
(5분)</td><td colspan="2">▸ 인사 및 출결확인
▸ 전 수업시간 회상, 단원 설명</td><td colspan="3">▸ 선생님께 인사
▸ 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며 오늘 수업과의 연관성을</td><td>명상 때
너무
무거운</td></tr>
</tabl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눈을 감고 친구들을 연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때 교사는 친구들을 연상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A4 용지 1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이해한다. ▸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해 자신의 학교, 학교의 복도, 다른 반의 친구들, 교실, 내 반의 친구들, 담임 선생님과 수업시간 등을 떠올리며 명상한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A4 용지를 받고 준비해온 식품을 꺼내 표현활동을 할 준비를 한다.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밝은 느낌의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다.
전개 (35분)	▸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학교생활화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법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해 설명한다. ▸ 자신을 포함해 선생님과 한 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교실 안이 되어도 좋고 밖이 되어도 좋다고 안내하며 작품에 무엇을 넣어도 되냐고 묻는 등의 질문에는 자유라고 대답한다. ▸ 다 만든 후 작품 속 인물이 누구인지 기록하게 한다. ▸ 동적 학교생활화 기법의 해석에 따라 설명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답한다. ▸ 작품의 빈 공간에 해석된 것들을 문장으로 적도록 유도한다. 또한	▸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학교생활화 기법을 이해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한다. ▸ 식품을 이용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자신과 선생님,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든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기록한다. ▸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이해하며,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 더 깊게 이해한다. ▸ 종이의 뒷면에 해석한 것들과 즐거웠던 점, 떠오르는 기억 등을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해서는 복습하는 정도로 넘어간다. 학교 안의 따돌림, 교우관계 등은 함부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리면서 즐거웠던 점, 작품을 하면서 떠오른 좋은 기억들 등을 함께 적도록 한다. ▸ 칭찬하기 : 조원들과 자신의 그림, 해석과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칭찬을 나누도록한다. ▸ 앞에 나와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도록 설명한다. ▸ 작품을 테이블 별로 사진기로 찍어 보관한 후에 즐겁게 먹는 시간을 갖는다.	함께 적는다. ▸ 자신의 조원들과 각자의 그림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며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 그림과 해석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 사진으로 작품을 찍고 난 후 작품에 사용된 식품이나 남은 식품들을 먹는다.	
정리 (5분)	▸ 본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의 기분을 묻는다. ▸ 다음 수업시간에 할 내용과 준비물을 안내하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 느낀 점이나 기분을 말한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의 준비물을 메모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꼭 학생이 기분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표9 수업 지도안 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단원	체험영역			차시	6/8
소단원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가족-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습형태	개인학습, 감상, 발표				
학습자료	교사	A4용지	학생	교과서, 식품	
학습목표	•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가족화 기법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관계를 자각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다. •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 친구의 해석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결확인 ▸ 전 수업시간 회상, 단원 설명 ▸ 눈을 감고 친구들을 연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가족에 대해 연상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A4 용지 1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 선생님께 인사 ▸ 전 수업시간을 떠올리며 오늘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오빠, 등의 가족 구성원을 떠올려 본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A4 용지를 받고 준비해 온 식품을 정리하며 표현활동을 할 준비를 한다.	명상 때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 밝은 느낌의 음악을 틀어 주는 것도 좋다.
전개 (35분)	▸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가족화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법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해 설명한다. ▸ 자신을 포함해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한다. 다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되고 각자가 따로 무언가 하고 있어도 되며 작품에 무엇을 넣어도 되냐고 묻는 등의	▸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가족화 기법을 이해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한다. ▸ 식품을 이용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자신과 가족들을 만든다.	푸드아트 테라피에 대해서는 복습하는 정도로 넘어간다. 발표한 학생은 점수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질문에는 자유라고 대답한다. ▸ 다 만든 후 작품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기록하게 한다. ▸ 동적 가족화 기법의 해석에 따라 설명하고 학생들의 추가적인 질문에 답한다. ▸ 작품의 빈 공간에 해석된 것들을 문장으로 적도록 한다. 또한 그리면서 즐거웠던 점, 작품을 하면서 떠오른 좋은 기억들 등을 함께 적도록 한다. ▸ 칭찬하기 : 조원들과 자신의 그림, 해석과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칭찬을 나누도록 한다. ▸ 앞에 나와 발표하고 자신들의 느낌을 말하도록 한다. ▸ 작품을 테이블 별로 사진기로 찍어 보관한 후에 즐겁게 먹는 시간을 가진다.	▸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기록한다. ▸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이해하며,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 더 깊게 이해한다. ▸ 종이의 뒷면에 안내를 따라 해석한 것들과 즐거웠던 점, 떠오르는 기억 등을 함께 적는다. ▸ 자신의 조원들과 각자의 그림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며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 그림과 해석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 사진으로 작품을 찍고 난 후 작품에 사용된 식품이나 남은 식품들을 먹는다.	주는 등의 보상을 준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 자율성을 강조하며 강제로 이야기하게끔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
정리 (5분)	▸ 본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의 기분을 묻는다. ▸ 다음 수업시간에 할 내용과 준비물을 안내하고 주변을 정리를 하도록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 느낀 점이나 기분을 말한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의 준비물을 메모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꼭 학생이 기분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표10 수업 지도안 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 지도안은 동적 학교생활화와 동적 가족화 기법을 활용한 수업 방안이다.

이 수업 방안은 학교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고,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1 지도안은 학교생활화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교우관계, 사제관계 등 학교에 관련된 대인관계부터 학교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학교생활화 기법의 해석은 동적 가족화의 해석에 기초하며 인물 간의 방향, 상호작용, 사물로 인한 포위, 구분, 음영, 얼굴 표정, 눈과 입의 강조, 자세의 경직성, 인물 간의 협동성, 피학성, 가학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부위를 짙은 색을 사용해 음영이 진 듯이 표현하는 것은 불안과 공격의 표현이다. 포위는 다른 사물에 의해 감싸여 있으며 이는 강한 공포, 불안, 불만 등 자신의 마음을 닫음에 대한 표현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줄넘기, 책상, 그네, 자동차, 돗자리 등이 있으며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이 포위가 있다면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또한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이며 다시 고친 인물은 그 인물과의 마찰을 예상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을 생략하거나 간략화한다면 아주 강한 거부를 나타낸 것이다. 뒷모습이 그려진 인물도 그 대상에 대해 불만이나 거부 등의 마음을 의미하며 옆모습인 인물은 뒤돌아 있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뒷모습과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얼굴의 이목구비가 표현되지 않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이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귀찮아서 표현하지 않고 넘겨버릴 수 있으며 그 시기의 전형적 패턴이기도 하다. 이목구비를 다시 고친 경우는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뜻하며 청소년기 학생의 작품의 경우 표현의 어려움일 수 있다. 눈동자가 없이 윤곽만 있는 눈은 자기중심 적임을 나타내며 큰 귀는 부모의 잔소리가 심하며, 귀가 강조된 경우 남의 말에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한다. 주먹과 날카로운 손가락 끝은 억제된 공격성을 의미한다.

이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필로 그리는 것이 아닌 식품을 활용해 만드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세세한 선의 굵기, 강도, 고쳐 그린 지우개 질의 흔적, 세밀한 표정 등은 해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큼직한 모형으로도 알 수 있으면서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요한 부분인 인물의 방향과 상호작용, 포위 등을 기본으로 하되 손가락, 이목구비, 음영에 대한 표현은 학생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영의 경우 “다른 부분보다 여기가 어두운 것 같은데, 맞니?” 등의 질문을 한다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동적 학교생활화 기법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학교 내의 문제나 폭력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은 교사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가해 학생의 협박에 의해 피해 학생이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한다면 즉시 담임교사나 그 학생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3-2 지도안은 동적 가족화 기법을 활용한다. 학교생활화와 비슷하게 한 공간 안에 가족 모두를 그리게 된다. 또한 역동적인 움직임이 더해져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 가족 안의 위계질서에 따라 그려지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 대체로 학생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스스로의 감정이나 태도, 학생의 시선에서 보는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게 된다. 단, 작품에서 해석되는 것이 그 가족의 온전한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 동적 가족화 기법은 가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임을 인지해야 한다.

동적 가족화는 대체로 인물상의 특징과 행위, 양식과 역동성, 상징 등 5개의 진단 영역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인물들의 방향과 얼굴의 방향, 크기, 신체의 부분적 왜곡이나 상징적 의미, 생략과 거리, 포위 등이 있다. 음영, 갈겨쓰기는 불안이나 공격의 지표이며 신체의 특정 부분에 음영이 졌다면 이는 몰두나 고착, 불안을 뜻한다. 신체의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한 집착이나 신경을 나타낸다. 가령 귀를 확대해 그렸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며 손일 경우 공격적 태도, 목은 의존성을 나타낸다. 반대로 신체의 생략은 그 부분의 기능을 거부하거나 집착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얼굴의 표정은 직접적인 여러 감정을 확인할 수 있어 아주 확실한 지표가 된다. 의복의 장식으로 단추나 액세서리가 강조되어있다면 의존성이 높거나 애정욕구가 불 충족된 경우를 의미한다. 인물의 크기 중, 극도로 큰 인물은 통제의 부족과 미성숙의 지표이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물이 작은 경우 소심함이나 우울, 정서불안의 지표이다. 또한 특정 인물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어있다면 이는 자신의 그 대상에 대한 견해와 관심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인물이 기울어있는 경우, 즉 비스듬하게 서있거나 아예 누워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격적이거나 소심한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강한 불안과 정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의 묘사가 정교하고 정확하고 질서가 강조된 경우, 강박적인 과도한 정교한 표현은 매우 위협적인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인물 간의 거리는 서로의 갈등을 의미할 수 있으며 얼굴의 방향에 따라 정면은 긍정, 옆면은 반 긍정이거나 반 부정을 의미하며 뒷모습은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족화 기법에서 가장 쉽게 가족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위는 포위이다. 대표적으로 책상, 카펫이나 방석, 줄넘기, 자동차 같은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포위의 경우 가족에 대해 자신이 개방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거나 그 대상을 거부하거나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공포 혹은 불안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3-2 수업 지도안은 푸드아트 테라피에 동적 가족화 기법을 활용한 지도안이다. 이 지도안으로 수업을 할 때는 해석 그 자체에만 집중해 표현된 물품의 상징적 의미에만 몰두해선 안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이 어떻게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알게 된 자신의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른 긍정적인 면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하기 전, 작품의 빈 공간에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적고 구성원마다 내 가족의 훌륭한 점을 한 가지씩 떠올려보고 써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 3-1, 3-2 지도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정보와 가정에 대한 정보, 학생의 학교와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다. 동시에 그게 자신의 시선임을 알게 해주고 지금까지 친구의, 선생님의, 가족의 나쁜 점만이 보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생각해 보고 인정함으로써 긍정적인 면을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효과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단원	체험영역			차시	7/8
소단원	더불어 사는 세상 -나와 나의 과거, 내가 보는 세상-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습형태	개인학습, 감상, 토론, 발표				
학습자료	교사	A4용지	학생	교과서, 식품, 필기도구	
학습목표	•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과 동적 집, 나무, 사람 검사 기법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되돌아 볼 수 있다. •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 친구의 해석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결확인 ▸ 전 수업시간 회상, 단원 설명 ▸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명상 음악이나 학생들과의 가벼운 담화 등의 요소를 사용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A4 용지 1장을 나누어주고 준비해온 식품들을 꺼내도록 한다.	▸ 선생님께 인사 ▸ 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며 오늘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한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A4 용지를 받아 표현활동을 할 준비를 한다.	전 수업시간에 한 기법을 언급해 연상을 돕는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 후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한다.
전개 (35분)	▸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집 나무 사람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법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해 설명한다. ▸ 종이를 가로로 제시하고 집, 나무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 푸드아트 테라피와 동적 집 나무 사람 기법을 이해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한다. ▸ 선생님의 안내에 식품을 이용해 따라 집과 나무, 사람을 만든다. 먼저 만든 것에 표시를 한다.	만일 학생이 발표하기 꺼려한다면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때 어느 것을 먼저 만들지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며 먼저 만든 것이 나무인지 집인지 사람인지 표시하라고 한다. ▸ 동적 집나무 사람 검사의 해석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하되 학생들에게 되도록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묻고 떠올리고 돌아보게끔 유도한다. ▸ 작품의 옆에 해석된 것들과 작품을 만들면서 들었던 즐거움 등,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문장으로 적도록 한다. ▸ 칭찬하기 : 조원들과 자신의 작품의 해석과 제작과정의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도록 유도한다. ▸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고 깨달은 점, 바꾸고 싶은 자신의 단점과 발전시키고 싶은 자신의 장점을 발표하게 한다. ▸ 작품을 테이블 별로 사진기로 찍어 보관한 후 즐겁게 먹는 시간을 가진다.	▸ 선생님의 해석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이해하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나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떠올린다. ▸ 작품의 옆에 안내를 따라 해석한 것, 작품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문장으로 적는다. ▸ 자신의 조원들과 각자의 작품과 해석,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이해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 그림과 해석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 사진으로 작품을 찍고 난 후 작품에 사용된 식품이나 남은 식품들을 먹는다.	발표한 학생은 점수를 주거나 아이스크림 등의 간단한 보상을 준다. 또한 나와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 있고 좋은 태도라며 칭찬한다.
정리 (5분)	▸ 본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의 기분을 묻는다. ▸ 다음 수업시간에 할 내용과 준비물을 안내하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 느낀 점이나 기분을 말한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의 준비물을 메모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학생이 기분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표11 수업 지도안 4-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단원	체험영역			차시	8/8
소단원	더불어 사는 세상 -과거와 부정, 긍정과 미래-			대상	중학교 1학년
학습형태	개인학습, 감상, 토론, 발표				
학습자료	교사	A4 용지	학생	교과서, 식품, 필기도구	
학습목표	• 푸드아트 테라피 기법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새롭게 발견하고 말 할 수 있다. •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 친구의 해석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 인사 및 출결확인 ▸ 전 수업시간 회상, 단원 설명 ▸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명상 음악이나 학생들과의 가벼운 담화 등의 요소를 사용한다.) ▸ 학습목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A4 용지 1장을 나누어주고 준비해온 식품들을 꺼내도록 한다.	▸ 선생님께 인사 ▸ 전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며 오늘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선생님의 제시에 집중한다. ▸ 학습목표를 이해한다. ▸ A4 용지를 받아 표현활동을 할 준비를 한다.	전 수업시간을 언급해 연상을 돕고 편안한 분위기 후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한다.
전개 (35분)	▸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바로 어제여도 좋고, 몇 개월, 몇 년 전이어도 좋다. 엄마에게 혼이 났거나 친구와 싸웠거나, 창피를 당했다거나 하는 좋지 않았던 일을 하나씩 생각해보라고 유도한다. ▸ 종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생각해둔 살아오면서 겪었던 슬펐던	▸ 오늘 할 주제를 이해하고 선생님의 제시에 따라 명상을 한다. ▸ 선생님의 안내에 식품을 이용해 자신이 겪었던 나쁜 일들 중 한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지금 있는 것은 '현재의 나'이고 우리는 지금 미래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때, 억울했던 때, 화났던 때 등을 연상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제시한 후에 자신의 기억속의 나빴던 기억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 승화하기 : 학생들에게 표현한 작품을 해체하고 새롭게 사용된 식품만을 통해 재창조하거나 장식을 하거나 일부분을 바꾸어 부정적인 내용을 표현한 작품을 해학적이도록 패러디화 하거나 새로운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도록 한다. 이때 키워드로 '미래'를 제시한다. ▸ 처음에 표현한 것에 대한 것과 바꾸거나 어떻게 승화시켰는지에 대해 간략히 적고 승화시키는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작품을 하는 전체적 과정에서의 심정의 변화 등을 간략히 적게 한다. ▸ 칭찬하기 : 조원들과 자신의 작품과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며 승화과정을 어떻게 잘 재미있게 표현했는지 서로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 작품을 테이블 별로 사진기로 찍어 보관한 후에 즐겁게 먹는 시간을 갖는다.	가지를 표현한다. ▸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만들었던 작품의 일부분을 변형시키거나 바꾸거나 혹은 아예 해체한 후 새롭게 만들어본다. ▸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의 변화와 완성된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등과 표현했던 것들에 대해 적는다. ▸ 자신의 조원들과 각자의 작품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작품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 사진으로 작품을 찍고 난 후 작품에 사용된 식품이나 남은 식품들을 먹는다.	보며 걷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아이들의 포커스를 미래로 유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작품의 주제가 어둡고 슬픈 주제가 될 수 있으니 작품을 하면서 느낀 부정적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한다.
정리 (5분)	▸ 본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지금의 기분을 묻는다. ▸ 다음 수업시간에 할 내용과 준비물을	▸ 느낀 점이나 기분을 말한다. ▸ 다음 수업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꼭 학생이 기분이 아니라 생각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말하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 ▸ 상호 인사 한다.	다음 수업의 준비물을 메모한 후 주변을 정리한다. ▸ 상호 인사 한다.	말하는 것을 주의한다.

<표12 수업 지도안 4-2>

위 지도안은 푸드아트 테라피에 동적 집, 나무, 사람 기법을 활용한 지도안과 부정을 승화시켜 긍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한 수업 방안이다. 4-1 지도안은 기법을 통해 자아와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자신을 스스로가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4-2 지도안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도안을 통해 보아왔던 자신의 단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나 혹은 그 외의 내면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트라우마나 상처 등을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시간이다. 부정을 덜어내고 그만큼 긍정으로 채우는 시간인 것이다.

4-1 지도안에 활용된 동적 집, 나무, 사람 기법은 객관적 정형화된 해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무와 사람, 집의 어우러지는 전체적 분위기와 상황, 조화와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학생의 나이와 지능 역시 중요하며 수업에 임하는 태도, 말투, 만드는 과정상의 마음가짐 등 행동양식도 중요하다. 먼저 전체적 형태와 구조로 사회적 관계, 신체 왜곡, 적응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려진 순서를 통해 학생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와 성격을 알 수 있다. 물체의 크기 등을 통해 자아나 자존감의 상태 역시 알 수 있다.

그려진 순서로 나무를 먼저 만든 경우는 위로 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뜻하고, 집을 먼저 만든 경우는 가정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양육에 대한 가정의 욕구를 뜻한다. 사람을 먼저 만든 경우는 세상이나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한다.

집 그림 중 지붕은 정신생활을 의미하고, 벽은 자아 강도와 연관이 있으며, 출입문은 환경과의 직접적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통로로서 대인관계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창문은 인간의 눈에 해당하는 곳으로 환경과의 수동적 접근의 통로로서 창문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출입문이 없는 경우 정신분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1차시의 나체상과 같이 상담을 추천해봐야 하는 증상이다. 굴뚝의 연기는 가정불화를 나타낸다.

나무 그림 중 나무줄기는 성격의 기본적인 요소로 학생의 감정을 말한다. 이때 번개로 부러진 줄기는 범죄자나 정신질환 내담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수양버들은 현실도피와 후퇴, 자폐, 퇴행의 의미이다. 가지는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하며 이때 수양버들은 소극적, 무력감, 비활동적임을 나타낸다.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는 근본으로 현실지배력을 의미하며 주의해야 할 표현은 고목이다. 고목은 무력감이나 자아 불안, 분열 증상, 죄의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지면의 선이 표현된다면 대인관계의 문제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열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의미하며 이때 떨어지는 열매는 외상 적 증후로 성폭행, 버림받음, 낙담을 의미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물화 검사에서 꼬인 다리와 함께 떨어지는 열매를 그렸다면 담임교사나 부모와 상담을 해보거나 학생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사람은 인물화 기법의 해석을 참고해 해석하되 집과 나무, 사람의 전체적 조화와 그림의 분위기를 주의한다. 이처럼 해석적인 부분을 이용해 전체적인 형태와 조화에서 얻는 학생의 내면 상태를 알 수도 있다. 식품을 통한 특별한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말함 하며, 동시에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인해 친구의 지지를 얻는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성 중 대인관계 형성과 건강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된다. 또한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과정과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점점 더 자신을 알게 된다. 이 기법을 수업에 적용하게 되면 학생의 전체적 조화를 볼 수 있고 자아와 대인관계 능력을 보는 등 폭넓은 정보와 함께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교류와 학생 스스로의 자아 탐색 및 성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2 지도안은 푸드아트 테라피에 집중한 지도안이다. 이 지도안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나 문제점을 직접 승화시켜 해소하게 된다.

먼저 학생들에게 좋지 못했던 기억을 작품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그 기억은 간단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모님께 혼이 난 것부터 따돌림의 기억이나 어딘가를 다치는 등 다양할 것이다. 섬세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주변의 친구들의 시선이나 미술치료에 대한 방어로 심각한 상처 나 트라우마보다는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을 표현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의 작품의 주제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주제라면 그 학생은 따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지도안의 중점은 자신의 불편했던 기억을 스스로의 의지로 재구성하고 재조명하는데 있다. 이때 키워드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키워드로 인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직접 부수고 '미래'의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다.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낀다. 작품이 끝났을 때 중요한 교사의 역할은 전에 만든 부정을 주제로 한 작품과 직접 바꾼 긍정을 주제로 한 작품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긍정적인 작품으로 바꾸는 과정만으로도 힘을 얻지만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좋지 않았던 기억의 작품을 과거에 연결하고 재조명해 만들어진 작품을 미래에 연결한다. 학생들이 불안정하고 불편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푸드아트 테라피가 적용된 수업의 기대효과

위의 미술치료 기법을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예방'과 '소통', 그리고 '긍정'이다. 교사는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고민과 걱정, 갈등으로 인한 심리상태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 비행, 가출, 등교거부, 따돌림의 가해 등의 문제로 향하지 않게 이끌기 위한 기반이 된다. 학생들에게는 사회를 살아가며 삶을 긍정적이고 밝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다. 앞의 각 차시별 수업 지도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① 첫 번째 단원의 효과 : 나와 친구를 돌아보기

본 단원의 인물화 검사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의 효과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생각, 내가 겪어왔던 경험에 의한 자신의 자아상을 접하게 된다. 이 인물화 검사는 이 밖에도 학생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생각, 무의식 속의 동기, 욕구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 차시를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 친구들을 더욱 깊게 알게 된다.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명확한 자신의 자아상과 더불어 무의식 속의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모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정립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며 내면의 갈등이나 혼란을 정리하는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내면을 학생들의 방어 작용 없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어떤 학생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있고 어떤 학생이 불안해하며 어떤 학생이 공격과 반항성을 품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많은 학생의 경우 어떤 이유가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등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동시에 친구들의 작품을 통해 친구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친구를 다시 보고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인 것이다.

② 두 번째 단원 효과 : 나와 주변 환경 돌아보기

나와 주변 환경 단원은 학생들의 창의성의 함양과 함께 가족의 문제 및 폭넓은 정보를 얻게 되는 활동이다. 가족과 학생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으로 해석에 과도한 중심을 두기보다 이유를 들어보아야 한다. 대체로 집안 내의 분위기와 누가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가족 간의 대화나 친근함의 유무, 도움의 요청 등의 사항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통일감과 친밀함, 가정이라는 테두리의 돈독함과 가족 내 다툼은 없는지 등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자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면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학교와 가정이다. 특히 가정의 문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 학생의 경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 기법은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 요소 중에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은 자신이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각하고 다시 한 번 가족에 대해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풍경 구성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와 고민의 유무, 비행이나 우울증의 유무와 가정에 대한 인지 상황, 학교폭력과 대인공포증 등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풍경 구성법을 통해 등교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나 따돌림처럼 방어기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알 수 있어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언어적 심리 상담에 비해 미술이라는 친근한 도구를 통해 학생은 교사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③ 세 번째 단원의 효과 : 학교와 가정 알아보기

우리가 사는 공간 단원은 학교와 가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고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친구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다. 본격적으로 학교 내부의 상황을 주시하는 차시이며 학교 내의 교사에 대한 믿음, 친밀함, 적대감, 반항감 등과 친구의 행동과 묘사, 형태, 방향 등을 통해 다른 친구들에 대한 학생의 지각적 감정과 대인관계, 교우관계를 알 수 있다. 그밖에도 대인관계에 있어 학생 개인의 성격 특성과 태도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네 번째 차시에서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이 동적 학교생활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하게 학생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따돌림의 유무, 교사 및 친구와의 친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적 가족화를 통해 학생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스스로의 감정이나 태도, 학생의 시선에서 보는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알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떻게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자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면을 재조명하게 되는 시간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④ 네 번째 단원의 효과 :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의 단원은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시간이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부터 과거에 대한 생각, 가정환경 등을 알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집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학생이 성장해온 가족 상황을 의미하고 가정 상황과 가정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무 그림은 학생이 자신의 자아상태를 알고 있고 그로 인한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 사람 그림은 이러한 의식적 자아상태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 차시로 인해 무의식을 알았다면 두 번째 차시로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의식의 생각을 알아보고 무의식에 대한 혼란을 덜어줄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가족사항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에 대해 교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잘 말을 하지 않고 또 교사는 학생이 말하기 전까지 잘 모른 채 문제가 발생했을 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동적 집, 사람, 나무 검사는 이렇듯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는가 엿볼 수 있고 혹시나 문제가 발견되는 학생의 경우 더욱더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학생을 돕고 나아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직접 부수고 미래의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불안정하고 불편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차시들을 진행하면서 교사는 자신의 해석이 학생에게 완전히 일치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며 이 수업의 중심은 학생들의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너무 객관적인 해석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기법을 해석할 때 교사는 절대 단언하듯 말해서는 안 되며 되도록 장점만을 알려 주어서 학생의 자존감을 쌓아주고 긍정적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치료기법을 활용한 작품에서 발견되던 문제점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 학생에게 직설적, 직접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그래도 괜찮으니 서서히 고쳐나가자는 시점에서 이야기해도 민감하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폭점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업시간 내에 자발적 발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특정 학생을 예시로 들며 해석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의식적 내면, 무의식적 내면의 다양한 생각이 묻어나는 개인적, 사생활적인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볍고 즐거운 느낌 속에서 진행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긍정적인 칭찬과 피드백을 항상 신경 쓰며 학생들이 절대 서로에게 비난을 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술치료가 언어적 심리상담보다 방어기제가 적을 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꼭 교사는 미술치료가 절대적 정답만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학생은 검사 도구를 통해 그림을 그렸을 때 얻은 해석과 결과를 부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그 해석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학생의 자신의 내면이 드러남에 대해 방어기제를 세운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러 가지 검사 도구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연관되어있다. 첫 차시에서 나온 자아상의 일부가 네 번째 단원에서 자아상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고 두 번째 단원의 가정의 상황의 일부가 세 번째 단원의 가정 상황의 기반이 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 전 단원의 모든 것들이 네 번째 단원에 포함될 수 있다. 네 번째 단원의 학교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단원에 드러날 수 있다. 이처럼 수업을 모두 끝낸 후 학생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작품 사이에서의 포괄적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미술 검사 도구라고 해서 오로지 그리는 것만이 전 부인 것은 아니다. 작품의 형태와 객관적 해석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그릴 때의 표정, 그림의 필 압, 지우개질의 여부, 검사 도구가 끝난 후 학생에게 묻는 각 질문의 답, 학생이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한 이유 등 그릴 때의 환경이나 마음 역시 주의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결론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성장,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 걱정과 혼란, 부담감이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학업 스트레스 등 많은 변화와 격동을 겪게 된다. 이 청소년기는 자아를 성립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때로 이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비행, 가출,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학교문제에 연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영향을 받아 왜곡된 자아상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사는 학생들의 중요한 시기일 때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위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학생을 위해 스트레스와 불완전한 정서를 표출해 해소하며 더욱 쉽게 변화에 적응하고 밝은 내면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미술은 자유로운 발상과 사고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심미성의 발달과 함께 감수성, 정서적, 인지적 발달 등 전인적 발달에 이바지한다. 미술은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 존중을 배우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 독립적 사고를 발전시킨다. 이렇듯 미술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 중 하나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미술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학생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미술치료를 미술수업에 적용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미술치료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담측면의 의사소통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언어적 상담에 비해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말하기를 피하는 것이 적으며, 미술을 즐김으로써 학생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술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통제력을 키워주며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한다.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의 해소와 자존감, 더불어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푸드아트 테라피를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나 다른 문제, 보복성이나 부끄러움 등으로 자신의 문제를 교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다. 특히나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소통의 문제에서 미술치료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생의 문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림에서 나타남으로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다가갈 수 있다. 더불어 학생이 가진 고민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예방 할 수 있다.

미술수업에 푸드아트 테라피를 적용하기 전에 적용을 위해 단원 분석을 한 결과 체험영역, 표현영역, 감상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험영역에서의 나에 대한 단원과 주변 환경, 친구, 가족, 자연, 생활공간 등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파트에 맞춰서 수업 지도안을 설계했다. 푸드아트테라피에 더해진 미술치료기법은 인물화 검사, 집, 나무, 사람 검사, 물고기 가족화 검사, 풍경 구성법 검사, 학교생활화 검사, 동적 가족화 검사이다.

인물화 검사를 통해 학생의 무의식을 알며 청소년기의 정서적, 인지적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앎으로써 혼란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친구와도 연결시켜 친구와 나 모두 깊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집, 나무, 사람 검사를 통해 학생은 전 차시에서 알게 된 무의식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알 수 있으며 연결된 과거의 부정과 미래의 긍정 파트를 통해 자신의 어려웠던 기억이나 부족한 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물고기 가족화 기법’은 가족 내에서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의 척도를 알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나 학생의 욕구와 성격, 자신의 가정에 대해 느끼는 학생의 느낌 등을 알 수 있으며 가족관계, 또래관계의 이해와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동적 가족화’ 역시 물고기 가족화 기법과 비슷한 맥락이며 자신이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자각하고 가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풍경 구성법은 앞서 말한 검사들의 모든 점을 포함해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더불어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나 문제점을 표현해준다. 학생의 의식적 자아와 상태,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 등교거부, 비행의 가능성, 우울증의 유무, 집단 따돌림과 대인공포증의 유무 등 학생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화를 통해 학교 내의 교사에 대한 믿음과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함이나 적대감, 반항감 등과 다른 친구들에 대한 학생이 느끼는 감정과 대인관계, 교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렇듯 검사 도구를 통한 작품에 묻어나는 학생의 고민과 문제점들을 통해 교사가 알고 방치했을 경우 일어나는 최악의 형태, 비행, 가출,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술치료를 미술수업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추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 내에서 배우는 미술 수업이 학생들의 성격이나 태도, 성적과 자아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향후 미래의 전망인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미술 수업 안에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한 수업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인성함양을 위한 교사연수도 이루어져야하며 수업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단행본

고현 외 4인, 『미술교육과 미술치료』 경기: 정민사, 2016

김춘일, 『중등미술교육론』 경기: 교육과학사, 2010

윤성희, 『푸드아트 테라피와 상담기법』 서울: 학지사, 2017

조주영, 『창의,인성교육 효율성으로의 초대 푸드아트 테라피』 서울: 한국에니어그램교육연구소, 2015

한상철,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2014

학위논문

강재은, “미술심리치료의 필요성” 동아대학교, 2014

김상희, “푸드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정서표현 및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2016

김양희, “푸드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2009

김인실, “중등 미술 교육에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김주연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미술교육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2010

김현영,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푸드아트 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호서대학교, 2015

김혜진, “푸드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효과” 목포대학교, 2009

도은지,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수업 연구” 중앙대학교, 2007

문경희, “동화를 활용한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입체표현능력과 채소편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2017

박희겸, “미술교육에 있어 미술치료의 활용적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2010

송미정, “협동적 푸드아트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자기효능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2015

안성수, “제7차 개정 미술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미술치료의 필요성 연구” 공주대학교, 2010

양정옥, “미술치료를 적용한 중등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우석대학교, 2011

우주현, “푸드아트 테라피 프로그램이 중학교 여학생의 우울, 불안,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2012

이상설, “중등학교 교육에서 미술치료의 역할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2012

이소희, “중등미술교육에서의 치료적 미술활동 제안” 성신여자대학교, 2012

이지혜, “미술치료를 활용한 중등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8

조은희, “중등 미술 교육과정에서의 미술치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6

조은성, “자연물을 이용한 푸드 아트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미술표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2017

최성모, “푸드 아트(Food-Art)를 이용한 요리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편식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2017

최정옥, “푸드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10

한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적 표현방식 연구” 중앙대학교, 2012

황현정, “푸드아트 테라피를 적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사례연구” 경인교육대학교, 201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이트

<그림 1-4>, https://blog.naver.com/jessica1914/220268362201
<그림 5-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egel&logNo=100058188088&parentCategoryNo=33&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그림 8-9>, http://www.daljin.com/column/2918
<그림 10-13>,
http://luxury.designhouse.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68656&c_id=00010003
<그림 14-15>, http://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13365
<그림 16>,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23181&memberNo=34432624
<그림 17>, https://blog.naver.com/triops/90029394313
<그림 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822484
<그림 19>, http://www.lovethispic.com/image/23869/bird-art
<그림 20-21>, https://mymodernmet.com/daniele-barresi-food-carving/
<그림 22>, http://news.cne.g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15
<그림 23>,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81895
<그림 2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nfusalfk&logNo=220639897679
<그림 25>,
http://aifat.org/bbs/board.php?bo_table=m62&wr_id=27&sfl=&stx=&sst=wr_good&sod=asc&sop=and&page=2

Collection @ chosun